

---

碩士學位論文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의 形成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李 杭 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文 昌 奎

1998年 8月

#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의 形成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李 杭 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文 昌 奎



文昌奎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의 形成에 關한 研究

文 昌 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 專攻

指導教授 李 杭 柱

본 연구는 일제하 제주도내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서 당시의 島內 초등학교의 설립과정과 초등교육법제의 개정에 따른 초등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의 변화·발전과정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고찰한 것으로서,

- (1) 일제하 제주도 改良書堂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주도 근대초등교육의 근원을 확인하고,
- (2) 일제하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의 설립과
- (3) 朝鮮教育수을 중심으로한 일제의 각종 법규와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제국주의가 전개한 식민지주의교육과 濟州島의 사정에 대해 개괄적인 면을 살폈고,

둘째 근대초등교육기관을 개량서당, 사립학교, 공립학교 등 유형별로 그 설립과정을 탐색했으며,

셋째로 일제의 한국침략 기간을 6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고 당시 제정·공포된 초등교육에 관한 법제와 그 미친 영향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기관들이 가지는 교육사적 의의를 찾아 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근대교육의 여명은 개화파 인사들이 이곳으로 유배와서 벌였던 교학 활동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전통적인 漢學 중심의 교학과는 다른 내용의 전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주도에서도 근대교육사상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동시에 근대학교들이 개교를 보게 되었다.

일제하 제주도의 초등교육기관들은 대부분이 서당에서 비롯하여 사립학교, 공립학교 또는 간이학교로 전환되었는데 당시 존재했던 개량서당들이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서 보면 本島의 근대초등교육기관의 탄생은 정부 주도의 공교육제도에 의했다기 보다는 개화파 인사들의 노력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교육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세워진 이 사립학교들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문맹퇴치를 중심으로 국민보통교육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학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들은 마을공동부담에 의해 설립되어 民立學校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도 폐교를 맞든지 일제의 교육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당시 초등교육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修身과 국어(일본어), 그리고 산술이 주요 교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여 지도되었는데, 일부 개량서당에 있어서는 폐쇄될 때까지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아 민족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도 했다.

일본의 식민지주의 교육정책은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와 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제도적인 면에서부터 차별을 두었는데 심상소학교의 4년과정이나 간이학교 2년 과정의 완성교육은 이를 잘 나타내는 사실이다.

일제하 근대초등교육기관들이 일제의 지배와 간섭 속에서 태동되고 발전해 왔지만 구한말 설립된 제주보통학교는 국민교육을 위한 근대공교육제도로써 제주도 초등학교의 효시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I. 緒 論 .....	1
1.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	1
2. 研究 内容 .....	2
3. 研究 方法 .....	3
II. 日帝下 初等教育의 歷史的 背景 .....	4
1. 日本의 韓國 植民地化에 따른 教育에의 干涉 .....	4
2. 日本의 植民地主義 教育政策 .....	6
3. 濟州島의 實情 .....	8
1) 書堂教育面 .....	8
2) 經濟·社會面 .....	11
3) 地方行政 制度面 .....	14
III.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의 形成 .....	16
1. 改良書堂 .....	16
1) 改良書堂의 概況 .....	16
2) 改良書堂의 轉換 .....	23
2. 私立初等教育機關의 設立 .....	30
1) 私立明新學校 .....	31
2) 禾北私立普通學校 .....	33
3) 私立日新學校 .....	36
4) 下道私立普通學校 .....	37
5) 私立中央普通學校 .....	38
6) 宗教界 私立學校 .....	38
7) 其他 .....	43

3. 公立初等教育機關의 設立 .....	45
1) 普通學校 .....	45
2) 簡易學校 .....	50
<b>IV. 日帝下 初等教育 制度와 教育內容 .....</b>	<b>53</b>
1. 學部の 學政參與官에 의한 教育干涉期 .....	53
2. 통감부에 의한 「學校令」施行期 .....	56
3. 第 1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	65
4. 第 2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	69
5. 第 3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	71
6. 第 4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	73
7. 普通學校(小學校·國民學校)의 教育內容 .....	74
<b>V.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 設立의 歷史的 意義 .....</b>	<b>76</b>
<b>VI. 結 論 .....</b>	<b>79</b>
<참 고 문 헌> .....	81
<Abstract> .....	86



## 표 차례

<표 1> 開化期の 濟州島 近代教育機關 .....	10
<표 2> 里民共同經營의 書堂 .....	19
<표 3> 書堂 一覽 .....	21
<표 4> 改良書堂이 近代學校로의 轉換 .....	25
<표4-1> 개량서당→사립보통학교로의 전환 .....	27
<표4-2> 개량서당→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	27
<표4-3> 개량서당→사립보통학교→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	28
<표4-4> 개량서당→간이학교→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	28
<표 5> 私立學校 一覽 .....	44
<표 6> 普通學校 一覽 .....	47
<표 7> 公立尋常小學校 .....	48
<표 8> 簡易學校 一覽 .....	51
<표 9> 제주도내 설립년도별 서당수 .....	55
<표 10> 初等學校法 體系 .....	57
<표 11> 教科들의 내용 비교 .....	58
<표 12> 普通學校教科課程及 每週教授時數表 .....	63
<표 13> 사립학교통계(1910~1925) .....	68
<표 14> 일제시대에 설정되었던 초등학교 교과목 .....	75

## 그림 차례

<그림1> 日帝下 濟州地方 行政圖 .....	14
--------------------------	----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자연발생적이었던 教育機關이 국가의 입법과 행정의 대상이 되어 어떻게 국가적 학교제도로 형성·발전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연구, 다시 말하면 현대의 국가적 학교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교육의 制度史的 연구의 중심문제가 되며 그것은 教育行政史 연구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현재의 교육제도의 충분한 이해는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만 기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 속에 존재하는 문제성과 모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教育制度 특히 學校制度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체인 동시에 미해결의 문제성을 內包하는 것으로서 그같은 辨證性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 교육의 制度史的 연구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교육의 制度史的 연구로서 日帝下 濟州島의 初等教育機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 보고 그 의의와 가치를 해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濟州島 近代初等教育의 출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시기를 대상으로 濟州島 初等教育을 制度的 側面에서 접근하여 그 현황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제도의 연구를 통해서만이 제주도 근대초등교육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고, 근대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의 先行이 있어야 현대초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 (1) 일제하 제주도 改良書堂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제주도 근대초등교육의 근원을 살피고,
- (2) 일제하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의 설립과
- (3) 朝鮮教育令을 중심으로한 일제의 각종 법규와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고찰하여 이 시기의 교육활동이 갖는 示唆點과 그 의의를 찾는 데 있다.



## 2. 研究 內容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地方制度史 연구의 일환으로 중앙 중심의 연구를 脫皮하여 향토민의 自發性과 自主性에 기초하여 민중적 地盤을 가진 지방제도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어느 특정한 사실에 대한 검증보다는 改良書堂, 公·私立普通學校와 기타 교육시설 등 식민지교육 全體相에서 濟州島內 近代初等教育의 面貌를 살펴서 식민지교육하에서의 제주도 근대초등교육의 뿌리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日本植民地主義教育 40년의 역사<sup>2)</sup>를 教育關係法令의 시행과 관련하여 ① 學部の 「學政參與官」에 의한 教育干涉期 (1905. 2~1906. 8), ② 日帝의 統監府에 의한 「學校令」施行期(1906. 8~1911. 8), ③ 朝鮮總督府에 의한 「朝鮮教育令」施行期(1911. 8~1945. 8) 등으로 대별<sup>3)</sup>하여 이 시기 구분에 따라 제주도에서의 근대초등교육기관의 설립 그리고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등을 고찰하는 것으로서,

- 1) 민족교육 및 근대초등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濟州島內 改良書堂의 설립과 存廢 및 발전 과정
- 2) 3·1운동 이후 소위 文化政治라는 宥和的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인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문맹퇴치, 사회계몽에 힘썼던 濟州島內 사립학교의 설립과정과 實狀
- 3) 서당교육의 탄압책과 일제의 文化暢達政策의 일환으로 세워진 濟州島內 공립학교의 설립과 實狀
- 4) 일제의 침략정책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교육내용은 어떠했으며그 영향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1) 慎鏞廈(1986), "새로운 鄉土史의 研究對象과 方法", 『濟州島研究』 第3輯, 濟州島研究會編, p. 5.

2) 일제의 한국침략기간을 일제 36년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나, 『韓日外國人 顧問備聘에 관한 協定』(1904. 8. 22)에 따라 1905년 2월부터 일본인 幣原坦가 學部の 顧問인 學政參與官으로 來韓하여, 한국인 청소년의 교육에 행정적으로 간여한 이후 1945년 8월의 패망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日本植民地主義教育期로 보는 鄭在哲의 견해에 따른다.

3) 鄭在哲(1985),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教育政策史』, 一志社, p. 193.

### 3. 研究 方法

#### 1) 研究의 範圍 및 制限點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濟州島內로 한정하며 대상기간은 日帝植民地主義教育時期로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强占하기 직전인 1905년에서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제도의 제 분야중 교육기관과 법령에 따른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했으며, 學制에 관한 것은 지방의 특수한 형태가 존재치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 2) 研究 資料

제주도내 향토지 및 교육제도에 관한 文獻, 新聞, 官報, 先行論文, 現場調査 및 自願人士의 面談 資料 등을 활용했다.



## Ⅱ. 日帝下 初等教育의 歷史的 背景

### 1. 日本의 韓國 植民地化에 따른 教育에의 干涉

露日戰爭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국에 일본군을 進駐시켜 1904년 2월, 이른바 「韓日議定書」라는 것을 강요하여 한국에서의 행동 및 군사기지설치를 인정시키는 동시에 「施設改善에 관한 忠告」를 받아들일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직적으로 한국의 內政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을 받았다. 戰線이 한국으로부터 滿洲로 이동됨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이라는 형태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1904년 8월에 「韓日外國人顧問備聘에 관한 協定」을 강제로 체결케 하고, 우리 정부내의 주요부서에 다수의 일본인 顧問을 파견하여 실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이 協定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韓國政府는 日本政府가 추천하는 日本人 1명을 財務顧問으로 韓國政府에 備聘하여 財務에 관한 事項은 모두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韓國政府는 日本政府가 推薦하는 外國인 1명을 外交顧問으로 外部에 備聘하여 外交에 관한 要務는 모두 그 意見에 따라 施行해야 한다.

여기서 財政顧問이 된 日賀田種太郎(메가다 다네다로오)는 부임하자마자 貨幣整理事業 및 財政整理事業에 착수하여 한국의 貨幣體系를 일본의 貨幣體系에 종속시켰던 바, 그 실시 과정에서 파생된 금융공황에 따라 한국내에서의 일본인의 토지 소유도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이 시기의 일제는 「顧問政治」를 더욱 진전시켜 제2차 韓日協約(소위 乙巳 保護條約: 1905. 11)에 의한 「統監政治」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국가권력이 한국교육에 간여하게 된 것은 1905년 2월에 學部顧問인 學政參與官으로 일본인 幣原坦(시데하라 다히라)가 임명된 때부터였다. 幣原坦은 韓國侵略肯定論과 「對韓施

政綱領」(1904. 10. 10)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분몰의 수입이 한국을 근대화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 청소년의 「日本人」화를 한국교육의 規準으로 삼았다.<sup>4)</sup>

1905년 2월 16일 에 學部大臣 李載克(1864~?)·外部大臣 李夏榮(1858~1919)·度支部大臣 閔泳綺(1858~1927)등과 幣原坦 사이에 한국의 교육행정에 관한 강압적이고도 침략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보면 幣原坦가 한국인의 「教育에 관한 모든 事項」의 시행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한국정부의 關議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강대한 권한이 부여되었고, 상당한 후대를 받았다<sup>5)</sup>는 점이 계약 내용<sup>5)</sup>에 잘 나타나 있다.

1905년 11월 17일의 제2차 韓日協約에 따라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에 「統監(resident general)」과 「理事官(resident)」을 두고<sup>6)</sup> 한국의 內政에도 감독권을 행사했다. 「乙巳保護條約」이라고 통칭되는 이 協約으로 외교권을 일본이 奪取했고, 종래의 내정간섭을 확인하는 동시에 統監府의 長인 「統監」은 한국황제를 직접 만나 諸種의 요구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인 「拜謁權」을 갖고 있어 사실상 식민지 지배와 다름이 없는 植民地統治體制의 한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統監府는 1906년 4월 11일에 「學部官制」를 개정하고, 1906년 8월 27일에는 「普通學校令」 및 「同施行規則」·「高等學校令」 및 「同施行規則」·「師範學校令」 및 「同施行規則」·「外國語學校令」 및 「同施行規則」·「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官制」 및 「同規則」 그리고 「學部編纂普通學校教科用圖書發售規程」(1907. 7.

4) 小澤有作(1964), 「民族教育論」, p. 65. ; 鄭在哲(1985),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教育政策史」, 일지사, p. 196에서 재인용.

5) 日本 外務省記錄, 韓國ニ於テ學部顧問備聘並ニ學政改革一件, 明治38年(1905) 2月 17日. ; 鄭在哲, 上掲書, p. 200에서 再引用했는데 이를 보면,  
第1條 : 幣原坦는 大韓帝國 學政參與官으로서 學部所管事務에 관해서 성실하게 審議起案하는 책임을 진다.  
第2條 : 大韓帝國 學部大臣은 教育에 관한 모든 事項을 幣原坦에게 諮詢하여 그 同意를 거친 다음에 施行한다.  
第3條 : 學部の 必要에 따라 幣原坦에게 學政參與官事務外로 教育에 關한 兼職을 명할 때는 幣原坦는 大日本帝國代表者의 同意를 거쳐 兼任할 수 있다.

6) 韓日協商條約, 第3條, 東亞同文會(編), 東亞關係特種條約彙纂, 東京:丸善株式會社, 明治39年(1906), p.840. ; 鄭在哲, 上掲書, p. 211에서 재인용.

3) 등을 제정하여 대한제국 황제의 「勅令」 또는 「學部令」으로 공포하면서, 對韓國植民主義教育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

이때에 제정 공포된 學部官制와 諸學校令 및 同施行規則은 중간에 일부 개정되기는 했으나 1911년 8월 22일에 일제에 의한 「朝鮮教育令」이 제정될 때까지의 한국인 청소년의 학교교육의 規準이 되었다.

## 2. 日本의 植民主義 教育政策

일본의 식민지주의 교육정책의 기본적 조건은 皮支配民族을 日本人化한다는 이른바 同化教育이었다. 한마디로 同化教育은 皇民化教育이다. 日帝의 同化教育은 1895年 中國領土의 일부인 臺灣을 強占한 이후 소위 大東亞共榮圈의 瓦解를 이루는 1945년까지 일관된 그들의 政策目標였다.

그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첫째, 日本語 教育과 日本의 文化에 동화하도록 強要하였으며,

둘째, 日本의 歷史와 日本의 生活樣式을 注入하였고,

셋째, 侵奪을 목적으로 初步的인 生産技術 특히 農業技術을 익히는데 主眼點을 두었었다.

近代的 教育 技術은 植民主義라는 特定한 政治目的에 從屬되어 反教育的인 目標를 달성하는데 惡用되는 狀況이었다. 日帝의 他民族 지배수단은 노골적인 정치적 隸屬과 경제적인 榨取 그리고 우리 민족혼의 말살에 있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경축일과 휴업일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진 점을 들 수 있다.

1906년(光武10년) 9월부터 실시했던 「普通學校令 施行規則」을 보면, 정해진 휴업일은 萬壽聖節日, 千秋慶節, 開國紀元節, 興慶節, 繼天紀元節, 일요일, 春季休業(4. 1~4. 10), 夏季休業(7. 11~8. 31), 冬季休業(12. 29~翌年 1. 7), 名節(寒食 전날과 寒食날, 秋夕 전날과 秋夕날, 설날 ; 12월 28일부터 翌年 正月 7일까지)날 등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1897년(光武1년)에 제정된 萬壽聖節日(고종황제의

탄신일)과 千秋慶節日(명성황후의 탄신일)을 가장 큰 慶祝日로 정했었다는 것이다. 음력 7월 16일은 開國紀元日이라 해서 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고, 음력 9월 7일은 繼天紀元節이라 해서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날이며, 음력 12월 13일은 興慶節이라 해서 1864년 고종임금이 즉위한 날이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다. 이런 날을 휴일로 삼아 임금에게 충성함이 곧 국가와 민족에게 충성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었다.<sup>7)</sup>

그러나 일제는 明治天皇이 1912년 9월 죽게 되자 日本 天皇 葬禮로 官·公·私立學校를 9월 13·14·15일 3일간 임시휴업으로 정하여 9월 13일에는 직원 및 학생들에게 遙拜式을 거행하도록 하라<sup>8)</sup>는 지시를 하달했고, 1912년 9월 18일 조선총독부령 제15호로 각종 학교 규칙을 개정하는 가운데 휴업일<sup>9)</sup>을 元始祭, 新年宴會, 紀元節, 神武天皇祭, 明治天皇祭, 天長節, 神嘗祭, 新嘗祭, 春季皇靈祭, 秋季皇靈祭, 日曜日, 夏季休業, 冬季休業, 學年末休業 등으로 개정하여 모든 행사가 일본의 입장과 일본 천황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2년 전까지만 해도 萬壽聖節, 千秋慶節, 繼天紀元節이니 하면서 우리 나라 임금에 충성해 오던 학생들은 일제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충성을 표시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皇民化教育을 강화하기 위해 1911년 11월 25일 공립보통학교 및 公立實修學校의 전직원에게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게 했다.<sup>10)</sup> 그러므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획일화를 꾀함은 물론 일본식 服飾을 통하여서까지 일본인화를 꾀해 나갔다.

그리고 1912년 1월 4일 조선총독 寺內正毅(테라우치 마사다케)는 前年 10월 24일자로 일본천황이 발표한「教育에 관한 勅語」의 등본을 각 학교에 배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훈령을 내렸다.

“教育에 관한 勅語는 帝國 教育의 本義를 밝히고 一視同仁 民衆을 慈愛하는

7) 濟州道(1996), 「濟州抗日獨立運動史」,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p. 97.

8) 朝鮮總督府, 「官報」, 1912. 8. 23.

9) \_\_\_\_\_, 「官報」, 1912. 9. 18.

10) \_\_\_\_\_, 「官報」, 1911. 11. 25.

뜻밖에 불외함으로 이를 本體하여 생도의 혼도에 노력하고 특히 學校의 儀式日에는 이를 奉讀해 生徒로 하여금 夙夜服膺하게 한다.”<sup>11)</sup>

勅語란 일본 임금의 명령을 말하는데, 한국의 임금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고 오직 일본왕의 명령을 따르라는 「教育勅語」를 한민족에게 강요한 것이다.

이후 미나미 조선총독은 1938년 3월 「朝鮮教育令 改正 및 陸軍志願兵令 公布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무릇 朝鮮 統治의 目的은 이 지역 同胞에게 진정한 皇國臣民으로서의 本質에 철저하게 하며 國勢와 世運에 副應하는 길은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3大 教育方針을 철저히 實施하여…….”<sup>12)</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戰時 朝鮮教育의 3대 강령으로 삼았다.

미나미 총독은 조선은 대륙침공의 병참기지로 군사적 경제적 임무를 완수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대 교육방침에 의해 황민화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듬해인 1939년 소위 「皇國臣民誓詞」라는 것을 제정, 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에게까지 맹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3. 濟州島의 實情



#### 1) 書堂教育面

濟州島는 문화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상 교육·지식의 진보는 육지에 손색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상 그 밖의 이유로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과 유배온 政客·學者가 많아 島民의 子弟교육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讀書文筆의 보급을 가져오게 되었는데<sup>13)</sup> 개화기 이전의 제주도 초등교육은 이러한 인물들에 의한 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元大靜郡誌 風俗편에 민속이 다 문학을 숭상하여 비록 極貧下賤한 자라 할지라도 負芘從師하여 修學하였다고 하였고, 옛부터

11) 朝鮮總督府, 「官報」, 1912. 1. 6.

12) 高麗書林(1986), 「朝鮮年鑑」 1939年度, p. 813.

13) 朴來鳳(1984), 「日帝統治下の 書堂教育의 實態」 -濟州島 I-, 韓國教育史學 第6集,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pp. 102~104.

지리상 중앙진출이 어려우니 京職을 貴히 여기지 않고 訓長과 座首를 가장 貴히 여기는 風潮가 이어져 오고 있다<sup>14)</sup>함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고구려 시대의 경당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와 조선시대로 교육적 명맥을 이어 오며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기까지 주된 사설 초등교육기관이었던 書堂은 일반 서민의 자제들을 그 교육대상으로 한 중요한 국민적 교육기관이었다<sup>15)</sup>. 조선중기 이후에 서당들은 鄉村마다 있을 정도였다고 柳馨遠은 礪溪隨錄에 적고 있어 전국적인 보통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濟州島內에도 많은 수의 서당들이 마을 단위로 散在해<sup>16)</sup> 있었고, 전통교육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가던 舊韓末에 들어서도 서민들에 대하여 보편적 교육기능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다.<sup>17)</sup>

이러한 서당들은 일제하 식민지주의 교육체제 속에서도 한국 고유문화를 보존 유지하고 전승시키며 우리의 정통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녀 단순한 ‘글침’이 아닌 민족학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교육으로 대다수의 일반 서민 자제가 보통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童蒙敎化와 鄕校, 四學의 진학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한국어, 한문, 일본어, 산술 등 보통학교 수준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서당교육은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주의 교육이었으며, 총독부가 서당의 교재로 韓國史(특히 檀君神話)가 들어 있는 朴世茂의 「童蒙先習」을 금하였으나 「童蒙先習」의 異本을 사용하여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고 한국사나 한국지리 등을 가르침으로써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의식을 다지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서당이 교육제도사적 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간략히 살펴 보면,

첫째 개화기 이후 사립학교의 설립은 서당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에 있어 金祥起는

14) 高炳五·林用厚(1968), 「元大靜郡誌」, 博文出版社, p. 61.

15) 孫仁鍊(1989), 「韓國教育史 I」, 서울: 文音社, p. 327.

16) 朴來鳳(1984), 前掲書, p. 103.

17) 濟州道(1993), 「濟州道誌」, 제3권, p. 91.



“많은 人士들이 설립하였고 이들은 학교를 신축하기도 하였지만 개인 집 또는 서당, 그리고 창고 등을 변형시켜 校舍로 사용하면서까지 학생에게 新學을 교육하였다.”<sup>18)</sup>

라고 하면서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신축하는 대신 서당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화기의 사립학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인 사설 교육기관의 탄생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서당에서 新知識을 教授하게 됨으로써 근대식 사립학교로 변모했다<sup>19)</sup>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래서당은 사립학교의 前身的 역할을 하였고 명칭을 ‘學校’, ‘義塾’, ‘書塾’, ‘學堂’, ‘學舍’ 등으로 바꾸면서 근대교육 開創에 기여한 것이다.

개화기에 있어 설립된 제주도 근대 교육기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開化期の 濟州島 近代教育機關<sup>20)</sup>

西紀年	教育機關名	地域	備考
1891	七峰書塾	吾 羅	
1898			金允植 流配
1903	義貞學塾	朝 天	1907年 閉鎖
	日語學堂	濟 州	日人이 開校
1904	文淵書塾	吾 羅	七峰書塾 改稱 1915年 閉鎖
1905	開成學校	大 靜	
1906	新明私塾	朝 天	
	進英私塾	下 楸 子 島	
1907	義明學校	城 邑	朴泳孝 流配
	濟州公立普通學校	濟 州	
	漢一學校	大 靜	
1908	義信學校	濟 州	
1909	晨星女學校	濟 州	1916年 閉校
	旌義公立普通學校	城 邑	
	朝天義塾	朝 天	
1910	永興學校	濟 州	夜 間
	公立濟州農業學校	濟 州	義信學校 母胎

18) 金祥起, “韓末 私立學校의 教育理念과 新教育國運動”, 『清溪史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濟州道教育研究院(1994), 『濟州의 書堂教育』, p. 29에서 재인용.

19) 飯山健(1992), “서당교육의 사회교육적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7~58. ; 濟州道教育研究院(1994), 上揭書, p. 29에서 재인용.

20) 濟州道教育研究院(1994), 前揭書, p. 28.

## 2) 經濟·社會面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제주도민은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하여 옛날부터 풍요한 집이라 하더라도 奴婢를 두지 않고 父子와 翁姑가 모두 한결같이 노동에 힘쓰며, 몸소 농경작업에 당하였다.<sup>21)</sup> 粗衣·粗食하는 간결생활에 익숙하였으며, 남녀 구분없이 일했다. 그러기에 1926년 濟州島廳 조사에 의하면 地主, 自作農, 自作兼小作, 小作 모두 전국 평균수입보다 초과하는 상태였고 당시 농가 생활상태에 관한 도내의 4개 금융조합의 조사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내는 大農과 小作農이 적고 부업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朴來鳳은 제주도의 경제적인 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濟州島는 큰 資産家와 極貧者가 없는 生活정도가 平均的으로 營爲되고 일반 생활상태가 他地方에 비하여 餘裕가 있었음은 日帝 統治下의 屢박하였던 朝鮮 農村 사정으로는 異例라 할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 濟州島는 氣候가 溫暖하고 資源이 比較的 豊富하며, 生活樣式이 簡潔하고 男女 共히 勤勉하여 自給自足の 觀念이 強하며, 島嶼特有的 半農半漁의 주민이 많고 農業上 副業生産의 發達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특히 女子의 勞動은 家計安定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推測된다.”

또한 제주도 경제 안정에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도민의 出勞(出稼)이다. 당시의 出勞(出稼)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해녀의 出勞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노동자의 出勞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渡航하여 大阪을 主要地로 하는 경우가 8할을 차지하였다. 出勞者 수는 大阪 외의 기타지방에 散在하는 약 1만명과 해녀의 근해와 원양에 出勞하는 1만명을 합하면 5만명이 넘는데, 이를 戶數에 할당한다면 평균 한 집에 한 사람 꼴이 되어 이는 島行政의 최대 관심을 요하는 문제였다고 한다. 이들로부터 송금되어온 액수를 보면, 渡航者 16,904名(1934년)이 보내오는 우편송금액이 1,053,940圓이었고<sup>23)</sup>, 육지의 해안, 일본 멀리는 중국,

21) 高炳五·朴用厚(1968), 「元大靜郡誌」, 박문출판사, p. 62.

22) 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京城: 朝鮮總督府), pp.163~172.

23) 濟州島廳(1937), 「濟州島勢要覽」, 濟州: 濟州島廳, p. 20., p. 24.

러시아의 우라디보스톡까지 出漁한 약 5천여명(1934년)의 어획고 약70만卍과 島近海에서 작업하는 해녀 5천 3백명의 漁獲高 27만 8천卍을 합하면 백만卍<sup>24)</sup>에 달해 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과 도민들의 향학심으로 1920년 후반에는 연 약 3백원을 요하는 島外(주로 일본 등) 유학생이 197명이나 되었으며,<sup>25)</sup> 도민의 이러한 出勞는 제주도민의 근대적 각성과 도민들에게 교육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들을 갖게 하여 근대학교의 설립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情況 속에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에 이르는 동안 실시했던 토지조사령에 의거 제주도에서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일본인 寄生地主를 포함한 半封建地主制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전당으로 맡긴 토지를 되돌려주지 않던지 위조화폐로 토지대금을 지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거나 조선인의 이름을 盜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약탈해 갔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은 부락의 공동체성을 위협하는가 하면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sup>26)</sup>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리의 경우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공동체적 부락의 조직과 부락민의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대표적인 경우이다. 즉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부락공동체적 조직인 鄉會 조직에서 里長 중심의 근대행정체제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sup>27)</sup> 이러한 변화는 곧 마을 공동체 교육환경에서 근대행정체제의 교육환경으로의 전환<sup>28)</sup>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즈음 일제는 제주도 근대화 계획을 서둘렀는데 제일 먼저 시행한 작업이 周道路를 닦는 일이었다. 제주도는 토질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도로 닦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1차로 1912년부터 1913년까지 도민들에게 賦役을 課하여 도로를 만들고, 2차로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도민에게 3년 계획으로 路幅 확장

24) \_\_\_\_\_, 上揭書, p.25.

25) \_\_\_\_\_, 上揭書, p.23.

26) 梁鎮健(1992), “日帝下 濟州道 初等教育 開設運動”, 『초등교육연구』, 제1집, p. 32.

27)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1990), 『濟州島部落誌(Ⅲ)』, pp.311-313

28) 梁鎮健(1992), 前揭書, p. 32.

을 위하여 路邊土地를 소유주로부터 무조건 기부하도록 억압하여 一周幹線道路가 완성되었다.<sup>29)</sup>

일제의 제주도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교육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문명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교육침략의 物的 토대 확보책이었다. 교육을 위한 물적 토대의 확보는 원래 역사 만들기(Geschichte machen)의 한 행위이지만 일제 주도의 그것은 근본적으로 脫亞入歐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脫亞入歐의 교육모델은 유럽과 미국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과 선진문화를 입수하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주의적 교육관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諸民族을 후진국 내지 열등민족으로 평가하여 교육적 후진지역에서 배울 것이 없으므로 따라서 모든 것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교육침략을 정당화하였다.<sup>30)</sup>

이후 1919년에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은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전의 총독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느껴 이후부터는 소위 文化政治가 시행되었다. 1919년 3월 1일 육지부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도민들은 朝天萬歲運動은 물론 서귀포의 海上萬歲示威 그리고 삼매봉 萬歲示威 등을 전개<sup>31)</sup>함으로써 그 동참의 폭을 넓혀나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일제는 문화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우선 조선인 가운데서 관리를 임명하고자 조선인 유력자를 포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개화파 人士인 洪鍾時를 1919년 5월 濟州面長으로 앉힐 수 있었다. 또한 1919년에 마련된 地方行政制度의 개정에 따라 1920년부터 濟州 13개 面に 官選 面協議會를 설치하고 面協議員을 선발하여 面 행정에 참여시켰다.<sup>32)</sup>

29) 濟州島廳(1924), 「未開の寶庫 濟州島」, 濟州: 濟州島廳, p.24.

30) 梁鎮健(1992), 前掲書,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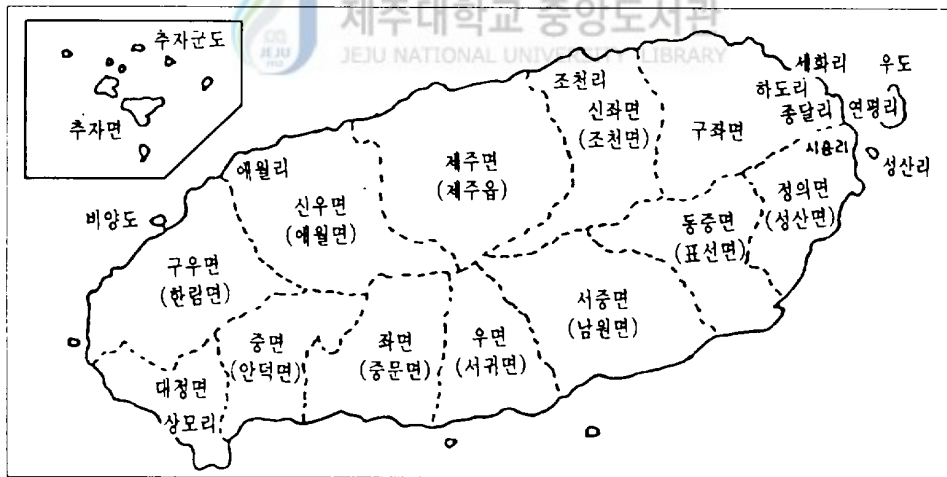
31) 梁鎮健(1990), “朝天萬歲運動의 歷史的 意味”, 「北濟州」復刊號, pp. 213-216.

32) 「全羅南道 事情誌」, p. 30.

### 3) 地方行政 制度面

行政區域의 변화를 보면 光武10年(1906年)에는 牧使를 폐지하여 郡守를 두어 濟州·旌義·大靜 등 3개 郡이 정립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침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일본식으로 개편하였다. 1910년 9월 3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 地方官制에 따라 사실상 면에 해당하는 것(社, 坊, 部 其他)은 모두 面으로 부르게 되고 지방행정의 下級單位로 인정되어 面長은 郡守의 지휘를 받아 面內의 행정을 집행하게 되었다. 1913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旌義, 大靜 兩郡을 濟州郡으로 合郡시키는 동시에 楸子面을 全羅南道 莞島郡으로부터 분리시켜 편입시켰다. 濟州郡 밑에는 13개의 面을 두었고 1915년 5월 1일부터는 郡制가 폐지되어 島制로 개편됨으로 해서 郡守를 폐지하고 島司를 두었는데 島司는 全羅南道知事의 지휘를 받아 島 전반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또한 島司는 濟州島 경찰서장, 해녀조합장, 山林會島支部長, 水産會島支部長, 農會島支部長을 겸임하여 전권을

〈그림 1〉 日帝下 濟州地方 行政圖



※ ( )안의 지명은 1935년에 고쳐진 지명임.

出典：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其Ⅱ)-濟州島』, 卷末 地圖.

행사하였는데 이는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거의 유지되었다. 1931년 4월 1일에는 濟州面이 邑으로 昇格되어 1邑 12面이 되었고, 1935년 4월 본도 1읍 12면의 명칭이 면사무소 소재지 邑名으로 거의 변경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일제 식민지통치 기간 계속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에 들어 전라남도 관할하의 島制로부터 독립, 道制가 실시되어 행정구역은 北濟州郡, 南濟州郡 2개 郡으로 분할되고 1邑 12面이 되었다.<sup>33)</sup>

1939년 島廳 관리 수는 國費 16명, 島費 27명 도합 43명인데 그중 한국인은 25명, 일본인은 18명이나 상위직은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島制가 실시된 1915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 島司는 총 10인으로 모두 일본인이었다.



---

33) 濟州道(1996), 「濟州統計年報」, p. 36.

### Ⅲ.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의 形成

#### 1. 改良書堂<sup>34)</sup>

##### 1) 改良書堂의 概況

濟州島의 근대교육은 당시 조선 全域에 걸쳐 일어난 교육구국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찾을 수 있겠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의 의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던 1895년경부터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교육구국운동을 벌여 3, 4천이 넘는 私立學校를 설립하였는데 「山間僻地의 작은 마을에도 學校를 세우지 않으면 부끄럽게 여기는 風潮가 생겼다」<sup>35)</sup>고 할 정도였다.

이 시기의 학교는 근대교육법제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의 한학서당을 기반으로 구축된 改良書堂이 그 주축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개량서당의 본격적인 활동은 1920년대에 들어서 부터 활발해졌으나 普明學舍처럼 그 前哨는 이미 개화기에서부터 성숙되고 있었다. 개화기 제주도에선 여전히 漢學訓導의 전통서당이 현저한 상태였으며 그 명맥은 해방후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제에 의해 근대초등교육기관이 출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화기 당시 제주도 교육의 현실은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sup>36)</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전통적 교육에서 근대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수

34) 朴來鳳(1984)은 改良書堂이란 日本人들이 「書堂規則」에 따라 漢文以外에 日語·算術 등을 教授한 書堂을 指稱한 것으로 規模(施設·設備)가 좀 크며, 在來式書堂과 區別하기 위하여 日本人들의 勸奨事項이었던 改良書堂을 無批判的으로 사용한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이들은 共同書堂·里民書堂 등으로 呼稱되었으며, 書堂이란 名稱을 사용한 곳은 적고 ○○義塾 등으로 格을 높이고 있다.

35) 姜德想(1965), “朝鮮に於ける國權回復運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1輯, p. 7. ; 제주도교육청(1991), 「제주교육행정발전사」, p. 225에서 재인용.

36) 梁鎮健(1995), 前掲書, P. 67

행한 개량서당은 전통서당을 기반으로 漢學訓導 위주의 教科課程 대신 신학문의 내용을 병행하여 가르침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던 기관으로 자생적 근대교육의 萌芽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그리고 근대 교육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눈여겨 볼 것은 서당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朴來鳳(1984)의 조사<sup>38)</sup>에 의하면 1936년말 현재 조선인 日本在住者 教育程度를 볼 때 總在住者(無教育包含) 46,463명 중에서 書堂修學者가 11,962명으로 약 26%이니 4명 중 1명은 서당에서 修學한 사람으로 정규학교 修學者數 4,585명의 2.8배에 해당된다고 하여 일제식민지하에서도 서당교육이 활발했으며 제주도민 교육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未開의 寶庫 濟州島」<sup>39)</sup>의 教育章에서

“朝鮮人の 初等教育은 公立普通學校外에 私立學校・改良書堂이 있고 이밖에 舊式의 漢文書堂도 현재 多數 存續되고 있다. 이 漢文書堂을 今日의 教育에서 본다면 一個의 價値도 없으나 이 書堂 教師 중에는 頑迷한 者가 있고 新教育施設에 대하여 나쁘게 宣傳하고 公立學校를 批判하는 것은 憫笑하기 짝이 없으며 그들은 國家社會가 무엇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第2의 國民을 養成할 것인가 또 思想의 善導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一切 無關心이다.”<sup>40)</sup>

라고 漢文書堂을 소개 비판하고 있다. 이미 異民族統治下에 있는 당시의 思想 善導는 同化教育에 동조 찬양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식민주의자가 그 시설과 방법을 비웃었지만 同化教育과는 한 線을 긋는 당시 서당의 眞面目을 그들 스스로 自認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改良書堂 指導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問題는 教師의 選任에 있어서 適否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들의 教育機關도 絶대로 度外視하여서는 안되니 視學制度를 실시하

37) 梁鎮健(1995), 前掲書, p. 66.

38) 朴來鳳(1984), 前掲書, pp. 106-112

39) 濟州島廳(1924), 前掲書 參照

40) \_\_\_\_\_(1924), 上掲書, p. 40.



여 監督을 嚴重히 하여 指導를 철저히 하는 것이 緊急事이다”<sup>41)</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개량서당의 경영을 지도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명분이고 교육내용 지도가 同化教育에 相背되지 않게 감독의 철저와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고 朴來鳳은 분석하고 있다. 이로 보아 漢文書堂이던 改良書堂이던 간에 同化教育이라는 식민지주의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서당교육은 書堂規則下<sup>42)</sup>의 감시대상이었고 面駐在所 巡査(警察)의 보고사항이었다. 당시의 서당경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最近 2·3年間에 島民의 教育熱이 높아졌기 때문에 各面에 改良書堂이 속속 增設되어 合計 47個, 敎員數 107名, 學童數 3,432名이며, 公立學校에서 收容하지 못하는 過剩兒童을 收容하여 公立普通學校에 類似한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그 經費는 授業料와 關係區民의 寄附金을 財源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는 基本金을 가지고 기초가 鞏固한 것도 있으나 設立基礎가 貧弱하여 時時 興廢의 變化가 있어 一般的으로 維持困難의 경우가 많음은 遺憾이다. 今後로는 몇 개의 里가 共同經營을 하게 하여 상당한 基金을 積立시켜 그 利子로 經營하게 指導할 필요가 있다.”<sup>43)</sup>

고 하였다.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 제29집인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는 <표 2>와 같이

41) 上揭書, pp. 42-43.

42) 1918年 4月の 「書堂規則發布」朝鮮彙報에 따른 學務局長 關根貞三郎의 談話文에 따르면 그 내용은 書堂開設時는 地方官에게 名稱, 位置, 學童數, 敎授用圖, 書敎本名, 維持方法, 開設者, 敎師(訓長)의 氏名과 履歷書를 구비 届出하여야 하고, 名稱은 學校·學院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書堂을 빙자하여 私立學校規則의 저촉을 모면하려는 意圖防止) 學童數는 30명 이내로 할 것과 漢文以外에 日語·算術 등을 敎授할 것과 書堂開設者와 訓長(敎師)은 禁錮以上の 刑을 받은 者, 性行不良者는 不可하며 道知事는 閉鎖 또는 敎師의 變更을 命할 수 있고 既存書堂은 6個月 이내에 府尹·郡守·島司에 届出할 것과 敎本으로 千字文·類合·小學·擊蒙要訣·啓蒙篇·四書三經·古文眞寶·通鑑·明心寶鑑·文章軌範·唐宋八大家·東詩·法帖·朝鮮總督府編纂敎科書 등을 들고 있다. 開設이 자유로왔던 書堂의 經營者·訓長·敎授內容을 監督強化 하려는 意圖를 알 수 있고 敎本 중에는 在來敎本の 하나인 童蒙先習을 除外시킨 것도 同·意圖였다. 1929년에 「書堂規則」이 改正되어 總督府編纂日本語敎本 使用을 義務化시켰다.

43) 濟州島廳(1924), 前揭書, P. 42.

〈丑 2〉 里民共同經營의 書堂

名 稱	職 員 數	生 徒 數	經 營
新 進 義 塾	男 2	男 100	里民經營
普 成 塾	男 2	男 30	同
溫 新 塾	男 1	男 35	同
新 進 塾	男 1	男 25	同
三 省 塾	男 1	男 45	同
進 興 塾	男 1	男 40	同
新 興 私 塾	男 1	男 30	同
以 文 義 塾	男 2	男 100	同
辛 酉 義 塾	男 2	男 92	同
光 鮮 義 塾	男 2	男 20	同
		女 20	
養 源 義 塾	男 2	男 30	同
育 英 學 院	男 3	男 80	同
永 明 私 塾	男 4	男 160	同
永 興 義 塾	男 1	男 20	同
	女 1	女 20	
期 成 義 塾	男 2	男 60	同
義 成 塾	男 2	男 50	同
信 成 義 塾	男 1	男 30	同
日 新 義 塾	男 1	男 60	同
就 進 學 塾	男 2	男 70	同
新 明 塾	男 1	男 50	同
普 成 義 塾	男 2	男 120	同
新 興 塾	男 1	男 40	同
新 成 義 塾	男 1	男 85	同
日 進 義 塾	男 1	男 55	同
普 昌 塾	男 3	男 120	同
25 개소	男42, 女1 計43名	男1,547, 女40, 計1,587	

民共同經營의 25개소의 서당<sup>44)</sup>을 들고 있다. 民共同經營書堂은 일반적으로 개  
인경영의 서당보다 규모도 크며 개량서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명칭도 서당이  
라 하지 않고 塾·義塾·私塾·書塾·學堂·精舍 등으로 불리워졌는데, 開·閉設  
의 내력이 기록되지 않아 총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학  
교의 교과를 교수하는 개량서당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29년 현재 民이 共同經營하는 서당의 教師는 43명, 재적학  
동수는 1,587명이니 同年의 公私立普通學校 재적학생수가 3,390명이므로 이와 비교  
해볼 때 半數에 가까운 학동이 民共同經營書堂에서 修學하였다. 당시의 사립보통  
학교중에서 11新學校만이 財團法人體이고 禾北·中央·下道普通學校는 民共同經  
營으로 되어 있어 이를(禾北 157명, 中央 134명, 下道 137명, 計 428명) 서당 학생수  
와 합치면 2천명을 넘어서니 제주도민의 높은 교육열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당시 서당의 개설은 府郡島의 申告届出制度였으나 1929년 6월에 총독부령으로  
서 1918년 제정된 “書堂規則”을 개정하여 서당마저 도지사의 감독하에 두어 더  
욱 규제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서당의 지도감독에 관한 것  
을 1932년 전라남도지사의 통첩으로 그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 통첩의 내용에는 각 초등학교원으로 하여금 매학기 1회이상 校下 서당을 시  
찰함과 동시에 「忠良한 國民」, 즉 日本化 하도록 힘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일제의 단속이 더욱 엄격하여졌고 동시에 허가 방침에 어긋나면 여지없이 허가  
를 취소하였던 탓으로 서당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서  
당의 존속은 계속되었으며 학동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음을 <표 3>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여학생수의 증가로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안방을 지키던 여자들도 敎學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1939년에는 처음으로  
여교원이 1명 나타나는데 여자 생도의 대폭적인 증가에 부응한 현상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여교원이 개량서당에 진출한 것은 1917년이 처음  
이며 이후 계속 증가되었다가 1930년, 1934년 그리고 1939년도에 급증<sup>45)</sup>하는 현

44) 朝鮮總督府, 前掲書, P.144에서 改良書堂 25개소로 紹介하고 있다.

4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參照

상을 보이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1939년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sup>46)</sup>

〈표 3〉 書堂一覽

年度	書堂數	教員數	學 童			備 考	統計出典
			男	女	計		
1929	53	83	2309	51	2,360		濟州島便覽
1930	52	77	1982	27	2,009		全南事情誌
1935	64	81	?	?	2,352		濟州島勢要覽
1937	69	90	?	?	3,254		濟州島勢要覽
1938	63	89	3397	296	3,693		全南の教育と宗教
1939	59	86	3280	418	3,698	女教員1名	濟州島勢要覽

전통적 교육이 제도적으로 부정을 당하기는 甲午更張 이후의 일로서 甲午更張 이후부터는 근대교육에 입각한 많은 학교가 설립된다. 이러한 학교 설립은 전통적 교육기관과는 달리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력이 있는 자는 정부를 제외하면 귀족이나 관료, 대지주와 같은 韓人 支配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래자본 뿐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열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량서당의 경우는 그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sup>47)</sup>

여기서 개량서당의 경영상황이 나타내는 특징<sup>48)</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징은 共同書堂이었다는 점이다. 서당의 경영형태는 육지에 서는 북부지방은 공동경영이 많으며, 남부지방에는 개인경영이 많은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제주도는 조선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里民經營(共同)形態의 공동서당이 많다는 것이다. 식민지시기의 중기 이후로는 육지에서 서당을 공동경영하는 모체가 된 洞契·宗契 등에서 경영한 書堂畵 등의 경제기반이 점차

46) 梁鎮健(1992), 前掲書, P. 38.

47) 梁鎮健(1995), 前掲書, p. 69.

48) 朴來鳳(1984), 前掲書, pp. 127~128.

로 소멸되어 공동경영서당은 거의 찾기 힘든 상황인데 비하여 본도의 경우는 특이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 이유로는 ① 육지의 농촌에 비하여 촌락구조가 대규모이어서 경영자금을 조달하기가 쉽다는 점, ② 수눌음(품앗이) 등의 어휘에서 찾을 수 있듯이 노동도 공동으로 하는 도민의 공동체의식이 강한 점, ③ 타지방에 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고 생활상태가 평균화되어 빈부의 차가 적다는 점, ④ 도민의 교육열이 높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오등동 소재 서당의 경우는 마을진흥회를 조직 서당을 후원하는 공동관리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sup>49)</sup>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개량서당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契 또는 接<sup>50)</sup>의 활용이다. 제주도의 경우 契나 接의 교육적 활용은 오래 전부터였다. 동리의 제반 서책 구입과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冊契 또는 冊接이나 서당교육을 위해 결성된 講契, 接, 文人接, 慕賢接 또는 서당 관련 친목회의 일종인 가마계, 고래계, 관대계, 상여계 등이 그것이다. 1910년 제주도 노형동 소재에 개설된 '廣坪書堂' 같은 경우는 總務가 冊契員을 조직하여 공동자금을 마련하여 책을 구입하는 冊契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契나 接은 그 자체가 교육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교육적 규약<sup>51)</sup>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둘째 특징은 한문서당과 구분하여 호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유한 재래서당은 한문서당이라 하고 漢文以外에 日本語·算術 등을 教授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은 改良書堂으로 호칭되고 있다.

셋째 특징은 훈장보수인 書債로 노력이 많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다. 훈장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현지생산 곡물과 현금 등을 연말, 년 2회, 매월에 교본에 따라

49) 梁鎭健(1995), 前掲書, p. 70.

50) "濟州島에서의 契나 接은 共同作業의 目標에 따라 組織된 一連의 勞動交換 形態로서 이를테면 어떤 基金을 마련하여 큰 일 때에 쓸 수 있는 連장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빌려 쓰는 사람에게 일정한 賃貸料를 받아 基金을 불리는 目的으로 結成된 民間團體組織 같은 것을 指稱하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契나 接은 洞里의 公共事業의 遂行이나 共同經費의 마련 같은 洞里의 公共 利益과 직접 關聯되는 目的을 指向하였던 것이다.

51) 規約의 한 例로 「右立論事殷近來世態不淑以讀書爲名或吸卷烟染化幻有吸卷烟具者口者失其束修抱其書冊出斥事」와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경제능력에 따라 등급을 두고 받기도 하고 무보수인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이었다. 대체로 훈장 보수의 내용·정도·납입시기에 있어서 육지와 별로 차이가 없으나 書債 대신으로 훈장 집의 밭일, 김매기 등 얼마간의 노력 제공으로 가름하는 예가 타지방보다 현저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는 훈장의 가정형편이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는 해석도 되며 서당에 다니다가 가정형편상 중단하는 예는 있어도 書債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학업을 중지하는 예는 적어서 수업료 때문에 중퇴하는 예가 2할에 가까웠던 공립보통학교와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점이라 하겠다.

## 2) 改良書堂의 轉換

본도에서의 개량서당을 포함한 諸서당들의 폐지의 원인을 朴來鳳(1984)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강제폐지·개량서당에로의 遷徙 등 일제의 간섭이 타지방보다 많았고, 둘째, 同化教育을 위한 諸학교로 개편된 예가 타지방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았으며,

셋째, 그런 중에도 장기 지속된 서당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여기서 일제의 강압에 의해 서당이 同化教育機關으로 개편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書堂→私立普通學校
- ② 書堂→公立普通學校
- ③ 書堂→私立普通學校→公立普通學校
- ④ 書堂→簡易學校→公立普通學校

(普通學校 중에는 식민지 말기의 尋常小學校를 포함한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전통 한문서당이 개량서당으로 변모되거나 새로운 개량서당이 생겨남과 또한 개량서당이 근대학교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신시대를 빨리 접할 수 있었던 外地로 출타한 본도민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朝鮮朝 儒學의 巨頭들의 流配地가 되었던 것이 지리적인 격리성에도 불구하고 朝鮮朝의 전체적인 敎學秩序 體系를 이뤄 道統과 流配人들의 적절한 관계로

濟州敎學思想의 커다란 學脈을 형성해 내려왔다는데 기인된 것<sup>52)</sup>이라 볼 수 있다.

개량서당은 교과에 있어서 근대교과를 도입하고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공헌을 했다.<sup>53)</sup> 개량서당의 설립자나 교사들은 일제의 탄압에 대응하여 轉進을 거듭하면서 음성적으로나마 민족의 주체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갔으며 경영자 중에는 독립운동가가 많았다는 점, 또한 서당의 교재 「童蒙先習」이 일제하에 轉變해 간 과정은 이를 입증<sup>54)</sup>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서당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의 근대교육이 태동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sup>55)</sup>

여기서 제주도의 경우 개량서당을 모체로 한 초등교육기관의 탄생은 일제시대 전체에 걸쳐 비교적 많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 대부분이 개량서당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교육의 內在的 발전 법칙을 규명하는데 있어 제주도 근대교육의 諸 특징과 그 지향점의 성격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示唆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56)</sup>

제주도 근대교육의 萌芽로서 서당교육의 역할은 그것이 식민지 제도교육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 半封建 敎育정책에 의해 식민지 엘리트층을 배타적으로 재생산하는 反民族的 敎育기구로 附着됨으로써 철저히 왜곡되긴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 敎育의 底流에 있어서는 민족敎育의 근간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2) 梁鎭健(1986), "朝鮮朝 濟州敎育思想史 研究", 「濟州島 研究」, 第3輯, p. 237.

53) 濟州道敎育廳(1991), 「濟州敎育行政發展史」, 濟州:耕信印刷社, pp.242~243.

54) 濟州道敎育研究院(1994), 「濟州의 書堂敎育」, 시민당인쇄사, p. 56.

55) 濟州道敎育廳(1991), 前揭書, p. 243.

56) \_\_\_\_\_(1991), 上揭書, p. 245.

〈표 4〉 改良書堂이 近代學校로의 轉換<sup>57)</sup>

書 堂 名	變 更 名	設立年	變更年	現在 學校名
1. 義貞學塾	朝天公立普通學校	1903	1922	朝天校
2. 私立漢一學校	公立大靜普通學校	1908	1911	大靜校
3. 禾北義塾	禾北私立普通學校	1908	1926	禾北校
4. 普明學舍 永信學舍	私立中央普通學校 私立中央尋常小學	1909 1921	1923 1938	舊左中央校
5. 徽文義塾	外都公立尋常小學校	1914	1939	外都校
6. 普明塾	舊右公立普通學校 翰林公立尋常小學校	1914	1923 1938	翰林校
7. 永明義塾	私立演坪尋常小學校 私立演坪國民學校	1915	1938 1941	演坪校
8. 高山新成私塾 普昌義塾	私立高山尋常小學校 高山公立國民學校	1915 1918	1940 1945	高山校
9. 培英義塾 廣濟義塾	江汀國民學校	1917 1922	1946	江汀校
10. 光明義塾	東廣簡易學校	1918	1934	
11. 昌興私塾	朝天東公立普通學校	1918	1943	北村校
12. 永明改良私塾	私立下道普通學校 下道公立學校	1919	1921 1944	下道校
13. 涯月公進私塾	新右公立普通學校 涯月公立普通學校	1920	1923 1935	涯月校
14. 進修義塾	左面公立普通學校 中文公立普通學校	1920	1927 1935	中文校
15. 新興義塾	龍水書堂(普通小學校)	1921	1936	龍水校(폐교)
16. 東西書堂	舊左公立普通學校 金寧公立尋常小學校	1921	1923 1938	金寧校
17. 明新義塾, 新進義塾	老衡國民學校	1921	1945	老衡校

57) 梁鎮健(1992), "日帝下 初等教育 開設運動", 『초등교육연구』第1輯, p. 36. 및 濟州道教育委員會編(1987)『濟州教育沿革誌(II)』, 그리고 濟州道教育研究院編(1994)『濟州의 書堂教育』, 각 마을 향토지 등을 參照하여 뽑은 資料임.



書 堂 名	變 更 名	設立年	變更年	現在 學校名
18. 武陵疑問義塾	武陵公立尋常小學校	1922	1940	武陵校
19. 辛酉義塾	加波國民學校	1922	1946	加波校
20. 普成私塾	於道簡易學校	1923	1940	於道校
21. 養源私塾	新孝尋常小學校	1923	1938	孝敦校
22. 新成義塾	造水私立尋常小學校	1924	1938	造水校(廢校)
23. 普成書塾 普成書堂	弘化公立國民學校 坪岱國民學校	1925	1936 1945	坪岱校
24. 일진義塾	德修公立國民學校	1926	1946	德修校
25. 都坪明進學塾	都坪公立學校	1927	1947	都坪分教場
26. 新興義塾	古城簡易學校	1928	1934	
27. 育英義塾 三共書塾	我羅簡易學校	1928, 1933	1941	我羅校
28. 育英義塾	道順公立尋常小學校	1929	1940	道順校
29. 일신書堂	松堂簡易學堂	1929	1937	松堂校
30. 中央義塾	西好簡易學校 西好國民學校	1930	1934 1943	西好校
31. 猊來義塾	猊來簡易學校	1930	1944	猊來校
32. 終達育英私塾	私設學院 終達國民學校	1931	1945 1951	終達校
33. 今岳書堂	今岳公立國民學校	1931	1944	今岳校
34. 蒼林書堂	道頭私立普通學校	1933	1936	道梨校
35. 新昌私塾	新昌公立尋常小學校	1933	1938	新昌校
36. 西廣書堂	西廣簡易講習所	1934	1939	西廣校
37. 仁明書堂	三陽公立尋常小學校	1934	1939	三陽校
38. 大東書堂	私立保城尋常小學校	1935	1940	保城校
39. 光明書堂	光令簡易學校	1935	1941	光令校
40. 東晉義塾	奉蓋公立國民學校	1935	1945	奉蓋校
41. 토평서당	토평국민학교	1935	1946	토평교
42. 大屹共同書堂	大屹簡易學校 大屹公立國民學校	1938	1941 1943	大屹校
43. 私設改良書堂	板浦國民學校	1939	1946	板浦校(폐교)

〈표4-1〉 개량서당→사립보통학교로의 전환

書堂名	變更名	設立年	變更年	現在 學校名
1. 禾北義塾	禾北私立普通學校	1908	1926	禾北校
2. 普明學舍 永信學舍	私立中央普通學校 私立中央尋常小學	1909 1921	1923 1938	舊左中央校
3. 永明義塾	私立演坪普通學校 演坪尋常小學校	1918	1936 1938	演坪校
4. 新興義塾	龍水書堂(普通小學校)	1921	1936	龍水校(폐교)
5. 新成義塾	造水私立尋常小學校	1924	1938	造水校(廢校)
6. 終達育英私塾	私設學院 終達國民學校	1931	1945 1951	終達校
7. 大東書堂	私立保城尋常小學校	1935	1940	保城校

〈표4-2〉 개량서당→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書堂名	變更名	設立年	變更年	現在 學校名
1. 義貞學塾	朝天公立普通學校	1903	1922	朝天校
2. 私立漢一學校	公立大靜普通學校	1908	1911	大靜校
3. 徽文義塾	外都公立尋常小學校	1914	1939	外都校
4. 普明塾	舊石公立普通學校 翰林公立尋常小學校	1914	1923 1938	翰林校
5. 培英義塾 廣濟義塾	江汀國民學校	1917 1922	1946	江汀校
6. 昌興私塾	朝天東公立普通學校	1918	1943	北村校
7. 涯月公進私塾	新石公立普通學校 涯月公立普通學校	1920	1923 1935	涯月校
8. 進修義塾	左面公立普通學校 中文公立普通學校	1920	1927 1935	中文校
9. 東西書堂	舊左公立普通學校 金寧公立尋常小學校	1921	1923 1938	金寧校
10. 明新義塾, 新進義塾	老衡國民學校	1921	1945	老衡校
11. 武陵疑問義塾	武陵公立尋常小學校	1922	1940	武陵校
12. 辛酉義塾	加波國民學校	1922	1946	加波校
13. 養源私塾	新孝尋常小學校	1923	1938	孝敦校

書堂名	變更名	設立年	變更年	現在 學校名
14. 普成書塾 普成書堂	弘化公立國民學校 坪岱國民學校	1925	1936 1945	坪岱校
15. 일진義塾	德修公立國民學校	1926	1946	德修校
16. 都坪明進學塾	都坪公立學校	1927	1947	都坪分教場
17. 育英義塾	道順公立尋常小學校	1929	1940	道順校
18. 今岳書堂	今岳公立國民學校	1931	1944	今岳校
19. 新昌私塾	新昌公立尋常小學校	1933	1938	新昌校
20. 仁明書堂	三陽公立尋常小學校	1934	1939	三陽校
21. 東晉義塾	奉蓋公立國民學校	1935	1945	奉蓋校
22. 토평서당	토평국민학교	1935	1946	토평교
23. 大屹共同書堂	大屹公立國民學校	1938	1941	大屹校
24. 私設改良書堂	板浦國民學校	1939	1946	板浦校(폐교)

〈표4-3〉 개량서당 → 사람보통학교 →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書堂名	變更名	設立年	變更年	現在 學校名
1. 高山新成私塾 普昌義塾	私立高山尋常小學校 高山公立國民學校	1915 1918	1940 1945	高山校
2. 永明改良私塾	私立下道普通學校 下道公立學校	1919	1921 1944	下道校
3. 蒼林書堂	道頭私立普通學校	1933	1936	道梨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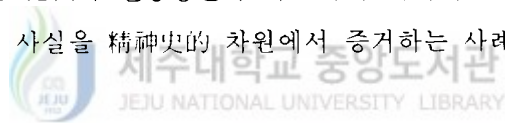
〈표4-4〉 개량서당 → 간이학교 →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書堂名	變更名	設立年	變更年	現在 學校名
1. 光明義塾	東廣簡易學校	1918	1934	
2. 普成私塾	於道簡易學校	1923	1940	於道校
3. 新興義塾	古城簡易學校	1928	1934	
4. 育英義塾, 三共書塾	我羅簡易學校	1928, 1933	1941	我羅校
5. 일신書堂	松堂簡易學堂	1929	1937	松堂校
6. 中央義塾	西好簡易學校	1930	1934	西好校
7. 猊來義塾	猊來簡易學校	1930	1944	猊來校
8. 西廣書堂	西廣簡易講習所	1934	1939	西廣校
9. 光明書堂	光令簡易學校	1935	1941	光令校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 개량서당은 전통적 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의 전환점에서 過渡期的 教育機關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통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져 가던 1900년대 초반에도 전국에 걸쳐 많은 수의 서당이 있었고 제주도에도 그러한 것을 보면 韓末에 들어서도 여전히 서당은 보편적 교육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교육의 배경에서 당시 민중들의 전통지향성이 어느 정도 강력했고 또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근대학교의 출현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당대의 過渡期的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sup>58)</sup>

1905년 같은 시기에 개설된 文書堂과 開成學塾을 비교해 볼 때 그 過渡性을 실감할 수 있다. 梁鎭健(1995)의 조사에 의하면 애월읍 하귀리의 '文書堂' 같은 경우는 漢學訓導 위주 전통서당의 맥을 계승하고 있는 형태지만 같은 시기에 인재양성과 교육구국의 급선무를 역설하고 李在喬가 설립한 '開成學塾' 같은 경우는 개량서당의 형태로서 전통서당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교육체제였던 것이다.

開成學塾을 설립한 李在喬<sup>59)</sup>의 근대교육운동은 反體制的 理想主義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先代의 전통정신과 유관하며 따라서 개량서당은 전통교육의 辨證的 양식이라는 사실을 精神史的 차원에서 증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8) 梁鎭健(1995), "開化期 濟州島 教育史 研究", 『濟州島史研究』第4輯, p. 68.

59) 開成學塾을 設立한 李在喬는 당시 널리 알려진 開化思想의 所有者로서 流配人 李世蕃의 後孫이다. 李世蕃은 金宏弼의 門人으로 同門인 趙光祖가 己卯土禍로 禍를 당하자 同門의 無罪를 伸救抗訴하다가 中宗 15年 濟州島에 流配를 오게 되자 이곳에서 古阜李氏 濟州人島祖로서 謫死한다. 이후 그의 後孫들은 大靜鄕校를 중심으로 濟州의 文風을 주도하게 되는데 後孫 가운데 李在守, 李承珍 등이 先代의 反體制的 理想主義 傳統을 가장 克明하게 드러낸다. 李在守는 辛丑民亂(李在守의 亂, 天主教亂, 辛丑年教難, 聖教亂 등으로 불리워지며, 研究者의 입장에 따라 '教難', '民亂', 혹은 '義兵 運動'으로 성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의 狀頭로서, 李承珍은 金達三이라는 이름으로 4·3사건의 左翼 대표로서 활동을 했는데 李在喬의 近代教育運動 역시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脈絡의 反體制的 理想主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梁鎭健(1995), 上掲書, pp. 68~69.

## 2. 私立初等教育機關의 設立

일제하 본도 사립초등교육기관들의 설립의 공통된 특징을 본다면 그 설립이 모두 3·1운동 이후라는 점과 마을 유지들의 공로가 컸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3·1운동 이후 소위 文化政治라는 宥和的 시기를 교육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에 마을의 開明된 지식인들이 奏效했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1911년에 공포하였던 「私立學校規則」을 그들의 계획대로 私學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대폭 수정하여 1915년 3월 「改正私立學校規則」을 다시 공포함으로써 私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리하여 1910년에 2,080교이던 사립학교가 1915년에는 1,154교로, 다시 1921년에 667교 1923년에는 649교로 대폭 감소되는데 대체로 5년마다 반으로 줄었던 셈이다.<sup>60)</sup>

그런데 3·1운동 이후인 일제 중기에 들어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여 비록 양적으로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질적으로는 그나마 다소의 성장을 보았으며 民間篤志家들은 私財를 기꺼이 내놓아 私學을 키워 주었다.<sup>61)</sup>

山北地方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사립보통학교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제는 공·사립 관계를 엄격히 구별하고 학교명 冠頭에 반드시 官立, 公立, 私立을 표시하게 했으며 사립에 대해서는 차별의식을 가져 심한 규제와 간섭이 있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私學이 민족주의의 본산지로, 또 배일사상의 거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922년 4월 애월면 신업에 白呂山가 홀로 財力을 부담하여 11新學校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일제의 懲濫으로 1939년 舊殿公立尋常小學校 개설에 따라 학교 제반업무를 이관하고 자진 폐쇄시켰다.

이후로도 사립보통학교의 개설이 있었으나 개인의 재력이 아니라 部落共同負擔이라서 民立學校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23년 구좌면 下道에 下道私立普通學校와 月汀리에 舊左中央私立普通學校가, 1926년 濟州面に 丕北私立普通學校가 개설되었다. 1936년 道頭私立普通學校와 1938년 牛島에 私立演坪尋常小學校<sup>62)</sup>,

60) 濟州道教育廳(1991), 前掲書, p. 249.

61)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濟州 教育史」, p. 67.

62) 演坪初等學校 開校에 대해서 濟州도교육위원회(1987) 발행 「濟州教育沿革誌(Ⅱ)」와 「濟

1939년에는 造水私立尋常小學校가 개교를 보았다. 1940년 下貴私立尋常小學校가, 同年 歸德私立尋常小學校와 高山私立尋常小學校가 개설되고 1941년 국민학교령이 공포됨에 따라 사립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고 1943년부터 사립교는 그 설립주체를 공립으로 변경 이관하기 시작하였다.

### 1) 私立明新學校

사립초등교육기관 가운데 특기할 일은 明新學校의 개설이다. 이 학교의 개설에 앞서 濟州城內에는 문맹퇴치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온 明信夜學所와 女修園夜學所가 있었다. 취학년령이 초과된 남자 문맹자는 明新에서, 또 여성 문맹자는 女修園에서 가르쳤으니 도민들로부터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sup>63)</sup>.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민족주의적인 지방 유지들로부터 보통학교 설립운동이 태동되어 1920년 私立明新學校가 개설<sup>64)</sup> 되었다.

이 사학은 明新夜學所와 女修園을 모태로 하여 두 夜學所에 관여 하여 온 金應斗, 宋澤薰, 朴喬薰, 洪淳宰, 吳有仁, 金澤銖, 崔南植, 韓相鎬, 高子煥, 李國彬, 崔貞淑, 姜平國 등의 희생적인 참여로 개설하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도민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덕망과 학식을 갖춘 신진 남녀 엘리트층의 집합체였다.

이 明新學校의 초대교장은 金應斗, 제2대 교장은 吳有仁이며, 교사로는 宋澤薰,

---

州道誌」제1권에서는 1936년 1월 16일 私立演坪普通學校로 인가 받아 동년 4월 1일 개교를 했다고 적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명칭을 찾을 수 없으며 학교 연혁지 기록이나 「濟州島勢要覽」(1939년) 및 「牛島誌」(1996)에 의하면 1938년 4월 16일 私立演坪尋常小學校로 인가 받아 동년 4월 25일 개교로 적고 있어 1938년이 바른 것으로 사료 됨.

63) 濟州道(1993), 「濟州道誌」제1권, p. 1166.

64) 明新學校의 設立年度는 濟州道(1993)가 發刊한 「濟州道誌」제1권 p. 1166에는 1922년으로 되어 있으나 濟州道教育廳(1979)發刊「濟州教育史」p. 70, 濟州道教育廳(1991)의 「濟州教育行政發展史」p.247, 그리고 濟州道(1996)發刊「濟州抗日獨立運動史」p. 199에 적고 있는 1920年度 設立이 바른 것으로 봄. 《동아일보》 1923년 4월 1일자 4면에 실린 “濟州明新校擴張”이란 記事에 보면 同年 3월 25일 오전 11시 第2回 修業式(이 式은 修業證書 및 賞狀授與, 學事報告, 來賓祝辭, 生徒總代의 答辭 등으로 치뤄진 것으로 보아 지금의 卒業式을 당시는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며, 또한 當時 明新學校 編制는 男子部 3學年까지 3學級, 女子部는 3學年까지 2學級으로 말하고 있어 1920年度 開設되어 1學年이 시작되어야 第2回 卒業式이 될 수 있기 때문임.

朴喬燾, 韓相鎬, 金澤銖, 高子煥 등이 활동하였고, 강사로는 崔貞淑, 姜平國 두 여성과 金明植, 李德彬, 崔南植 등이 활동하였다. 학교는 宋澤燾의 소유인 제주시 2도동 佛教布教堂 부근 5천평을 무료로 임대 제공받아 4개의 교실과 1개의 관리실을 갖춘만큼 규모가 컸었다. 그러나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는 설립유공인들의 自費로 충당하였고 교사들도 무보수가 대부분이었다.<sup>65)</sup>

1923년 당시 明新學校는 남녀공학으로서 남자부 3학년까지 3학급, 여자부 3학년까지 2학급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sup>66)</sup> 과목은 보통학교의 과정과 동일하되 한문이나 조선어, 산술, 지리 등에 주력하였으며, 주간에는 보통학교과정, 야간에는 성인반과 학령초과자 등 주야 2백여 명을 가르쳤다.<sup>67)</sup>

그러나 학교재정이 어려워지고 또 일제의 부당한 간섭으로 1924년 1월 학교는 해산되어 버리고, 그 대신 일제의 간섭을 받는 甲子義塾이 설립<sup>68)</sup>되었다. 결국 甲子義塾은 明新學校의 학생들을 인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3·1운동 직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民立學校를 중심으로한 민족교육운동은 일제의 교묘한 탄압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甲子義塾은 모든 운영권을 일본인 島司에게 넘기고 학비마저 인상함으로써 1924년 2월 17일 당시 전체 학생 217명 가운데 학비를 납부한 학생은 3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학교측이 학비 미납자들에게 정학처분을 내림으로 학부모들의 심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甲子義塾도 심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1924년 학교 문을 닫아버렸다. 결국 학생들은 제주공립보통학교로 흡수되어 일제의 관제 교육체제에 편입되어 버렸다.<sup>69)</sup>

明新學校의 폐교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어려운 교육재정 때문이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이유를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제는 「私立學校令」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시설 보관을 독려하였으며 시설 보관이 미흡할 때는 폐교조치를

65) 《濟南新聞》1973년 9월 27일자 4면, “내가 걸어온 길”-崔貞淑 篇 ④-와 濟州道教育廳 (1991), 전계서, p. 248. 내용에 의함.

66) 《동아일보》1923년 4월 1일, 4면, “濟州明新校擴張”.

67) 《濟南新聞》1973년 9월 27일자 4면, “내가 걸어온 길”-崔貞淑 回顧-

68) 《동아일보》1924년 1월 14일, <명신교 遂 해산, 甲子義塾 창립> 기사에 의함.

69) 濟州道(1996), 前掲書, pp. 202-203.

취함으로써 열악한 사립학교들을 정비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 기관들을 독려함으로써 시설을 확충케 하고 보다 근대학교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明新學校의 사정이 폐교할만큼 어려웠다면 왜 「私立學校令」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보완책은 강조하면서 사립학교의 진흥을 위한 사립학교 보조책 같은 것은 베풀어지지 못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明新學校는 당시 도내에서는 崧星女學校가 폐교된 이래 처음으로 출발을 한 사립학교로서 보조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의 결론은 결국 明新學校의 폐교는 미흡한 시설 등을 이유로 「私立學校令」에 의한 폐교를 위한 폐교가 아닌가로 해석<sup>70)</sup>되기도 한다. 이 학교의 설립자들이 일제의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항상 미행과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민족의식이 투철한 민족주의자들로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뒤에 제주도 항일운동의 지도자로 나섰음<sup>71)</sup>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 2) 禾北私立普通學校<sup>72)</sup>

禾北은 李朝 500년간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의 신학문과 신문물을 처음으로 접하는 기회가 많았기에 역사적으로 교학사상과 신문물의 수용능력은 그 어느 마을 사람보다도 화북 사람들이 앞섰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새로운 부분에 진취적인 기질을 가지게 했다고 본다. 禾北私立普通學校가 설립되기 전 1925년까지 당시 도내 최고교육기관인 濟州農業學校를 졸업한 분들이 12명에 달해 화북리내의 학풍과 신문화의 유입에 자극을 주었고 이러한 신교육에 대한 열의는 이 분들로 인하여 고조되어 1926년 禾北私立普通學校를 설립하는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sup>73)</sup>

70) 濟州道教育廳(1991), 前掲書, pp. 248-249.

71) 濟州道(1996), 前掲書, p. 200.

72) 禾北洞運營委員會(1991), 「禾北洞 郷土誌」, pp. 109 - 122.

73) 白子勳(1990), “禾北里 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 「耽羅文化」第10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p. 310.



丕北私立普通學校의 前身인 丕北義塾에 대해서는 1925년(大正十四年) 3월 23일 丕北義塾 제2학년 학업우등 상장<sup>74)</sup>에 분명히 丕北義塾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데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2학년이 있었다는 사실과, 賞狀文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丕北義塾의 교육내용이 보통학교 교육내용과 유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丕北義塾이 언제 어떠한 분들에 의하여 설립 되었으며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증언에 의하면 화북의숙은 1919년 3월 5일 설립하고 塾長은 愼洙浬, 塾監은 康源珍씨였다고 한다.<sup>75)</sup>

화북의숙을 모체로 丕北私立普通學校가 설립되었으며 설립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 보면 丕北民들이 후세 교육을 위하여 자진하여 학교 설립 자금을 모았으며 당시 학교 설립을 위하여 자금을 모았던 文件(白子勳<sup>76)</sup> 所藏)에 의하면 1921년(大正十年)에 회사한 사람과 捐捨金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以前에 學校 設立 계획이 이루어졌고 1921년부터 設立資金이 募金되기 시작하여 1925년까지 募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3년(大正12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學校 設立에 필요한 基金이 마련되는 時期에 이른 것 같다. 당시 學校 設立 資金을 募金 하였던 日記帳의 序頭に

大正拾貳年(1923年)癸亥 正月拾日 學務財政明細

一金貳千壹百七拾九圓八拾四錢也

內譯 借金證書貳拾壹通貳千貳拾八圓七拾五錢

現時殘金壹百五拾壹圓九錢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2179圓 84錢이 총모금액인지 아니면 일부 모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회사자는 화북 守里民이 아니고 서동 거주자로서 회사자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후의 文件은 1928년(昭和 3年)丕北私立普通學校 기본

74) 白子勳(1990), 上揭書, p. 314.

75) \_\_\_\_\_(1990), 上揭書, p. 313.

76) 濟州大學校 教授.

금에 대한 大正15年(1926년)에 성립한 차용증서에 관한 文件으로 이로 미루어 丕北私立普通學校 설립기금을 부락별로 할당 동수 책임하에 수금하도록 하였으며 丕北私立普通學校 설립자 康基業이 西洞洞首 白泰胤 西洞公員 玄圭鎔 앞으로 證憑證書가 있는 것으로 보아 未納者에게는 借用證書를 받은 것 같다.

1920年 前後 물가를 오늘날에 비교하여 보면 당시 白米 一斗 값이 40錢, 쇠고기 一斤 값이 30錢 정도라고 하므로 壹百圓이라 하면 白米 250斗 값으로 당시로는 대단한 금액이었으며 당시 2,179圓48錢을 募金한바 白米값으로 계산할 때 5,450斗분에 해당된다. 한편 1927年 丕北私立普通學校 經常費 2,469圓이 所要되었다고 하니 당시 道廳臨時書記의 日給이 80錢으로 비교하면 8年 6個月值가 되는 셈이고, 매년 里 단위에서 負擔하기에는 매우 벅찬 財政 負擔이었다.

또한 丕北私立普通學校 設立을 위하여 당시 里民들은 賦役도 마다 하지 않았음을 다음의 사실로 알 수 있다. 校舍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오고, 돌을 운반, 매일같이 賦役을 하여 喚風亭 西側으로 喚風亭 木建物과 연이어 2개 교실을 신축하였다고 하니 당시 경제적 부담과 매일같이 동원되는 賦役도 마다않고 오직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만으로 학교를 만들게 되었으며 당시 학교 설립의 기본 요건으로 기본 자산은 옛 丕北鎭 터와 화북의 일부 공유지를 기본 자산으로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sup>77)</sup>

2개의 校舍도 지었으며 마을의 몇 안되는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 교사가 되어 마침내 주민들의 힘으로 1926년 7월 丕北私立普通學校를 훌륭히 설립하였는데, 이때의 편제를 보면 수업년한은 4년, 학급수는 5 학급으로 편성되었다. 화북의 주민들은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고 성인들은 이 학교 안에 다시 야학을 개설하여 공부했는데 1943년 일제 당국은 무상으로 접수하여 丕北公立國民學校를 세웠다. 일제가 학교를 접수하여 공립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화북학교 설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때문이라 여겨진다.

화북학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력을 모아 세운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학교의 설립보다 그 의미가 크다. 私立明新學校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운영됨

77) 白子勳(1990), 前掲書, p. 312.

으로 해서 여러 문제가 露부되어 결국 폐교가 되었다고 본다면, 화북학교는 공동체적 결속력을 모태로 출발했고 운영되었다는 면에서 明新學校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사립학교였다고도 볼 수 있다.

### 3) 私立日新學校<sup>78)</sup>

1920년대 초 신우면(현 애월읍)은 戶數가 5천여 戶이고, 인구가 2만여 명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없었다. 新右面 유지들은 이를 항상 한탄하여 오다가 文昌淑의 발기로 1921년 6월 '교육진흥회'를 조직하고 학교설립에 나섰다. 학교의 위치는 처음에 면사무소 소재지인 애월리로 정하였으나, 신업리 출신 白呂由가 자기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조건으로 건축비 5천원을 기부하겠다고 나서므로써 신업리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한편 日新學校의 위치가 신업리로 변경되자, 애월리민들은 이에 분개하여 대책을 강구한 결과 애월리에서 교실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부근 8개 밭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1교를 설립하기로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애월학교는 文昌淑, 신업학교는 金翊洙 兩氏에 의해 신우면에 두개의 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당시 兩校에서 4백여 명이 신교육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sup>79)</sup>

여기서 애월학교의 설립 인가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일신학교는 1922년 7월 2일 金翊洙의 신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다.<sup>80)</sup> 일신학교의 설립에 따른 사연을 보면 신업리 출신 白呂由는 원래 가산이 넉넉치 못하였는데 후진교육에 뜻을 두고 도일한 후 사업에 헌신 거금이 축적되자 귀향하여 5,000원을 회사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同里 출신 成呂興이 토지 3,300여 평을 기증하여 학교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당시 面長 金道鉉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日新學校는 私立一般學校로 私立普通學校와는 달리 전남 전체에 莞島의 藥山學校와 이 日新學校뿐이었다. 설립자는 白呂由이나 학교장은 김익

78) 濟州道(1996), 「濟州抗日獨立運動史」, pp. 204 - 205.

79) 《동아일보》 1922년 4월 26일, 4면, "濟州島二校新設立".

80) 《동아일보》 1922년 7월 17일, 4면, "日新學校設立認可".

수, 현호진 등이 역임했고, 4년제인 이 초등학교는 1929년에 재학생 178명인데 그 중에 여자가 3명 있었다. 10년 뒤인 1939년의 아동수는 여자 2명을 포함해서 214명이었다. 그러나 1939년 구업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자 일신학교의 모든 경영은 이에 인계되고 따라서 자연 폐쇄되게 되었다.<sup>81)</sup>

#### 4) 下道私立普通學校

이 학교는 구좌면 하도리에 위치하며, 1923년 4월 5일에 인가가 되었으며, 매년 소요경비가 2,600 餘圓이 필요하였다. 본교의 설립에 대하여는 물론 향민 전체의 노력의 결정이겠지만 특히 고영근, 강공철 등 그 지방의 선각자 힘에 의해서 빛을 보았다고 하겠다.

康共七은 당시 舊左面長으로 학교설립유지회 회장이며 초대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 외로 夫啓俊, 康成信 등이 공로가 있으며 더구나 高道根의 부인 뒤틀씨와 뒤틀희숙의 부인 夫氏는 학교설립에 거금을 희사한 분들이다.

1929년 아동수는 여자 9명을 포함하여 187명이고 4년제인데 1939년에는 여자 25명을 포함하여 400명의 아동을 수용하는 6년제 초등학교로 발전하였고, 1944년 4월 1일 下道公立國民學校로 개편되었다.<sup>82)</sup>

일제말기 이 학교에 대하여 金頌松(65세)<sup>83)</sup>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자신은 부친을 따라 당시 종달리에 거주했는데 종달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서당에 다녔었다. 서당의 학동수는 20여명 정도였고, 그곳에서 천자문을 1년간 배운 후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곳이 하도사립보통학교였다. 이때가 1943년도인데 국어라 하여 일본어를 배웠고 산술과 修身을 배웠다. 수신은 상당한 시간을 배운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말인 한국어는 절대 사용 못하게 하여 만일 학교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다 들키면 10錢의 벌금을 내야 했다. 우리의 말과 글의 사용 여부를 감시기 위해 감시원을 두었는데 이 역할은 선배들이 맡았다.

81)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p. 67 - 68.

82) \_\_\_\_\_, 上掲書, p. 68.

83) 金頌松(65세), 북제주군 우도면 천진리 거주, 1998년 6월 11일.

연중행사로 운동회를 1회 개최했는데 사열과 기마전, 달리기, 땅따먹기 등의 놀이로 경쟁했다. 소풍을 갔던 기억은 없으며 대신에 난방을 위한 솔방울을 따러 갔었던 기억이 있다.

월1회인가 신사참배를 했는데 현재 구좌읍사무소 자리가 신사의 자리였다. 이때는 배급품으로 운동화와 검은 고무신을 주었는데 운동화는 특별한 학생에게만 주어졌다. 학교를 오갈 때는 짚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고 다녔는데 일제는 한국 학생들에게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하여 맨발로 다니게 했다. 그래서 학교 가까이까지 신발을 신고 갔다가 정문 가까이 오면 신발을 숨겨두고 맨발로 학교 안에 들어갔다. 이는 발바닥에 충격을 주어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들판에서 자굴을 베어다가 말려서 이를 달여 茶로 이용하기도 했다. 당시의 월사금은 얼마인지 기억이 안나며, 6학년 학생 중에는 결혼한 이들도 있었다.”

#### 5) 私立中央普通學校<sup>84)</sup>

이 학교는 舊左面 月汀里에 있으며 1924년 5월 20일에 인가되었는데 舊左面 杏源里의 普明塾과 月汀里의 永興塾을 合併, 月汀里 100번지에 私立普通學校의 설립을 보게 된 것이다.

설립당시 4년제였던 것을 1930년에 6년제로 승격하였으며, 초기의 학교장은 姜世篤이었다. 학교 운영에 따른 鄉民들의 노력은 대단했으며, 특히 洪淳中, 金成律, 朴聖 ;, 愼元式 등의 공이 현저했다.

1929년에 아동수는 여자 6명을 포함하여 190명이며 10년 후인 1939년에는 여자 29명을 포함하여 380명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해방과 더불어 舊左公立中央國民學校로 개편되었으며, 이 학교의 매년 소요경비는 3,005圓이 필요하였다.

#### 6) 宗教界 私立學校

##### (1) 濟州島女學校와 改新教界 女學校

濟州教育史에서 종전까지는 晨星女學校를 제주도 최초의 여학교라고 보아왔는

84)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 68.

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양진건(1997)은 주장하고 있다.<sup>85)</sup> 이러한 주장은 崧星女學校가 설립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여학교와 관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濟州教育史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라크루(Lacroux, 其瑪瑟)<sup>86)</sup>신부가 뮈텔(Mutel, 閔德孝)주교에게 보내는 1903년의 편지글 가운데 「濟州島 女學校 책임자(女)가 辭職을 하고 제 집주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sup>87)</sup>」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주도 여학교」란 정확히 어떠한 학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라크루 신부가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교리문답을 위한 비형식의 소규모 학당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sup>88)</sup> 또 다른 事案은 1908年 서귀포烘爐本당에서 司牧을 하던 타케(Taquet, 嚴宅基)<sup>89)</sup>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곳 제주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 한 분에게 지불할 엽전도 부족하여 아무 것도 못하

85) 梁鎮健(1997),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耽羅文化』第1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p. 427.

86) 그는 1871년 5월 8일 프랑스 바욘느(Bayonne)교구의 보르드에서 태어나 1890년 9월 16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했으며 1894년 7월 1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같은 해 8월 29일 한국 선교를 위하여 출발하여 10월 23일에 도착하였고,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 뮈텔(Mutel, 閔德孝)주교는 그를 전라도로 보내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했으며, 전라도에서 5년을 보낸 뒤인 1900년 5월 4일 한국인 김원영(아우구스 티노)신부와 함께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87)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3집,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천주교제주교구, 1997, p. 175.

88) 梁鎮健(1997), 前掲書, p. 426.

89) 그는 1873년 프랑스 루르드 지방에서 출생한 후, 1897년 파리 외방전교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10월 28일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리고 곧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1898년 1월 조선에 입국했다. 서울에 입성한 그는 장호원 본당에서 시골 선교사의 생활과 조선말을 잠시 익힌 후 부산 본당의 주임 신부로 임명되었으며, 1899년 초대 진주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고 1900년 6월 29일 본당을 마산포로 옮기고 그곳에서 사목하던 중 1902년 4월 20일 제주 한논 본당의 제3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제주 부임 이후 타케 신부는 우선 한논 본당을 흥로로 이관하였는데 이후 한논 본당은 현 서귀포 복자수도원 자리인 서흥리로 옮겨짐과 동시에 흥로 본당으로 개칭된다. 특히 타케 신부는 식물채집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 그가 채집하여 프랑스로 보낸 식물 중에서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제주왕벚꽃나무는 아주 유명하다.

고 있습니다.」<sup>90)</sup>라고 적고 있는 사실에서 이미 某種의 여학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여학교」와 마찬가지로 타케 신부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계의 여학교도 당시의 각종 학교설립에 따른 정부나 제주도 관계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개신교계 목사가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 형식의 성경공부를 위한 비형식의 소규모 학당이 아닌가 양진건(1997)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추측은 문건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학교의 성격이야 어떻든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형식·비형식의 기준이라는 것이 학교 또는 교육의 규모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 당국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濟州島女學校나 改新敎界 女學校는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한국 근대교육의 萌芽로 주목되고 있는 개량서당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의 태동을 가능케 한 제주도 여성교육의 萌芽로 이들을 평가할 수 있다 하겠다.

## (2) 晨星女學校



라쿠르 신부가 신식여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학교 설립의지는 당대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근대학교 설립운동과 결코 무관치 않다. 즉 濟州郡守 尹元求에 의하여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가 1907年 1월에, 중등교육기관인 私立義信學校가 同年 7월에 각각 개교를 하였기 때문에 신식 여학교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을 것으로 본다.<sup>91)</sup> 특히 한국의 실정에 알맞는 여학교 교육이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되자 뒤늦게 여아들을 위한 교육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라쿠르 신부의 여학교 설립 계획은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0)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회, 上掲書 第4輯, 「초기분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제주교구, 1997, p. 155.

91) 梁鎭健(1997), 前掲書, p. 427.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 계획은 1909년 9월부터 본격화 되는데 ‘학교는 수녀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여학생들을 改宗시키는데 열의를 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09년 10월 18일 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 모집에 들어갔는데 봉건사상과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당시에 여자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덟살 때 입학했다는 崔貞淑<sup>92)</sup>은 「아버지 崔점사와 같이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딸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했고 서울에서 수녀 두 분을 초청하여 家家戶戶 방문하면서 학생들을 모집, 교과서와 학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공부를 시켰다. …… 신성 1회 졸업생은 모두 5명이어서 高守善, 姜平國씨 등을 들 수 있다.」고 回顧<sup>93)</sup>하고 있다.

4년의 초등과정과 1년의 중등과정을 갖춘 신성여학교는 1914년 제1회 졸업식에서 5명을 배출한데 이어 제2회에서도 6명이었으나 제3회에서는 16명으로 대폭 증가 되는데 도내의 여성교육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일제는「私立學校令」을 공포함으로써 1908년 당시 3, 4천을 헤아리고 있던 사립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립학교를 政談政論을 일삼는 소위 정치학교와 종교를 매개로 하는 종교학교로 구분, 종교학교를 사립학교령에 복종하도록 하면서 정치학교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sup>94)</sup> 사학을 그들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1911년에 만든 「私立學校規則」을 대폭 수정하여 1915년에 「改正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하게 되는데 여태껏 어느 정도 치외법권에 속해 있던 종교계 학교에 대해 교육과 종교의 분리라는 구실 아래 탄압이 가해졌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신성여학교도 3회의 졸업생만을 배출한 채 1916년 폐교의 위기를 맞게 된다.

92) 晨星女學校 제1회 졸업생이며, 해방후 初代 晨星女子中學校 校長을 歷任하였고,濟州道 初代 教育監을 지냄.

93) 《濟南新聞》1973년 9월 17일 6면, “내가 걸어온 길”, 최정숙 편 ①. 제주도교육위원회 (1979) 발간 「濟州教育史」p.32의 註에서는 故崔貞淑 女史의 술회 내용을 제남신문 1970 ‘내가 걸어온 길’의 일부라고 했는데, 1970은 1973의 잘못된 것임.

94) 小澤有作(1982), 「民族教育論」, 東京:明治圖書出版株式會社, p. 94. ; 梁鎮健(1992), “日帝下 濟州道 初等學校 開設運動”, 「초등교육연구」, 第1輯, p. 42에서 再引用.



### (3) 改新教界의 教學活動

본도의 기독교 개척자인 李基豊 牧師는 濟州島 宣教를 위해 가족과 함께 1908년 이른 봄에 제주에 도착한다. 이후 李基豊 牧師의 10년간에 걸친 선교사업으로 기독교가 크게 전파되었는데, 이에 一助를 담당한 것은 당시 李 牧師 夫人 尹氏였다. 윤씨는 교회 내의 宿舍에 여자 34명을 모아 가르쳤는데, 이것이 1910년 6년제 永興學校(夜間)로 되어 남녀 학생 수십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山南地域에서는 1920년에 모슬포교회의 尹植民 牧師가 光鮮義塾을 세워 교육활동에 힘썼으며, 1923년 봄에 補修科를 부설하여 많은 졸업생을 내었다. 이 시기인 1922년에 한림 쪽에서는 협재교회의 元容赫 助師가 英才夜間部를 설립하여 그 마을과 인근 마을의 남녀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활동을 폈다.

이어서 1930년에는 濟州老會가 조직되어 5년제 달성경학(短期 聖經學校)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教學活動을 폈으며, 1938년에는 老會가 本館 약 40명과 기숙사를 건축하여 평신도 교육<sup>95)</sup>에 힘썼다.

당시 개신교계에서는 정규학교의 설립보다는 夜學을 중심으로한 문맹퇴치운동에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형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질 못하여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그러나 일제하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문맹퇴치와 관련한 성인교육, 사회교육의 한 단면을 반영해주는 사례로써 좋은 참고가 된다 하겠다.

또한 성안교회(현 교회명 : 당시 교회명은 '城內教會'였음)에서는 1924년 사립 중앙유치원을 개설하였는데 개원 당시에는 1학급에 교사가 1명, 원생수가 남자 12명, 여자 18명으로 30명<sup>96)</sup>이었지만 1927년도 당시에는 교사가 2명이고 남자 19명, 여자 22명 포함 41명<sup>97)</sup>으로 도내의 호응도가 비교적 컸음을 반영하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다. 중앙유치원은 제주도 최초의 유치원으로 도내 개신교계 교육활동 가운데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95) 大韓예수교長老會 濟州老會(1978), 「濟州宣教 70年史」, pp. 46~47 요약.

96) 「濟州邑勢」, 1963, 參照 : 梁鎮健(1992), 前揭書, p. 43에서 재인용.

97) 「全羅南道事情誌」, 1927, 參照 : 梁鎮健(1992), 前揭書, p. 43에서 재인용.

있음을 알 수 있다.

### 7) 其他<sup>98)</sup>

이 외의 학교들 중 특기할 만한 학교는 私立造水尋常小學校와 牛島의 私立演坪尋常小學校이다. 私立造水尋常小學校는 1938년 4월 11일 설립 인가되어 아동은 여자 5명을 포함해서 56명이 입학하여 개교를 보게 되었으며, 교사는 梁呂保가 담당하고 설립자는 당시 翰林面長 金稔宇이다.

한편 牛島에서는 일제가 1918년 서당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개량서당 혹은 개량사숙이란 명칭으로 종래의 한문 및 습자를 비롯하여 국어(일본어) 산술 등을 추가하여 신식공부를 가르쳤었다.

『舊左面誌』와 기타 자료에 보면 “演坪 永明書堂은 1918년 설립, 下牛日洞 都家집에서 개설되었으나 塾長은 未詳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牛島誌』(1996)에는 1918년 5월 10일 下牛日洞의 부락 공회당을 이용하여 永明義塾이 개설되고 초대 塾長은 下古水洞 태생인 尹寬仲이며 그의 명의로 濟州島司에게 신고하여 허가장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이 義塾이 개량서당으로서 牛島에 처음 개설된 신식 교육기관인데 후일 이 지역의 초등학교 개설의 모태가 된 것이다.<sup>99)</sup> 여기서 下牛日洞의 ‘永明書堂’의 변화 과정을 鄭贊景<sup>100)</sup>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永明書堂은 下牛日洞 都家집에서 개설되었는데 안채와 바깥채가 있었고, 里民 회의실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尹寬仲은 회의시 의장을 맡았었다. 과정은 6년 과정(4년 과정이 아닌가 함)으로 학생수는 1개 반당 남자만 20~30여명이었고, 15세 이상의 기혼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교과는 ‘조선어독본’, 역사, 지리, 산술 등이었는데 H語는 배우지 않았다. 교사는 金應斗, 金炳勳, 金智昊, 金浩奎, 金南錫, 申才弘, 康玄(우도지에는 ‘現’으로 적고 있음)斗, 玄○○(당시

98)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 68-69.

99) 牛島誌編纂委員會(1996), 『牛島誌』, p. 385.

100) 鄭贊景(1919年生: 男)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464-5에 거주. 당시 살았던 집이 바로 都家 아랫집이어서 학생들은 물마시러 자기 집을 찾아오기도 했으며, 그럴때면 자기를 귀여워해주며 말을 주고 받기를 잘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을 곁에서 많이 보았다고 함.

배재중학교 3년 수료했다는데 牛島誌의 玄昌浩가 아닌가 함.) 등 서울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젊은 청년들이었다. 자신은 8살(1926년)때 1학년에 들어갔는데 1929년 차두유의 재정 부담과 申才弘의 노력으로 上牛日洞에 3칸 기와 집을 일본인 목수에 의해 지어져서 공부했는데 비바람에 도피되는 바람에 상우목동의 학원과 현재 오봉리 정미소 자리의 학원(증언자에 의하면 학원 이름이 '유치원'이라 함.) 등 2개의 학원으로 분리가 되고 오봉리의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자신은 사립하도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학하게 되었다. 이때 오봉리 학원은 문이 없고 초가집으로서 흙담을 하고 있었다. 당시의 교사로는 尹德寶, 金聲五, 康寬順, 吳文卿, 高元瀚 등이었다. 행사로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으나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하여 만세를 부르므로 민족정신을 드높였다. 졸업생 중에는 공립제주농업학교로 진학하여 고향의 교학활동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분들도 많다.”

일제하인 1939년 濟州島廳에서 발간한 「島勢要覽」에 의하면 “私立演坪尋常小學校는 1938년 4월 16일 설립인가되고 수업연한은 4년이며, 학급수 4, 교원도 4명이었다. 아동은 남자 212명 여자 13명 도합 225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設立 責任者는 당시 舊左面長이었던 李仁洪이었고, 教師는 永明義塾의 교원이었던 牛島出身 高泰柱, 高元瀚이 담당하여 학교의 초창기 기반을 공고하게 확립하였다.<sup>101)</sup>

〈표 5〉 私立學校 一覽<sup>102)</sup>

(1927년 현재)

설립	교 명	년 한	설립년도	학급	학 생 수			조력자
					남	여	합	
사립	日新	4	1922. 6	3	187	0	187	白昌由
사립	下道	4	1923. 11	4	171	8	179	康共七
사립	中央	4	1924. 11	4	172	5	177	洪淳中
사립	禾北	4	1926. 7	4	169	7	176	康基業

101) 牛島誌編纂委員會(1996), 上揭書, p. 390.

102) 全羅南道廳編, 「全羅南道事情誌」의 내용 요약. ;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揭書, p. 50에서 재인용.

이후 1940년 4월 6일에 歸德私立尋常小學校가 金稔宇, 洪淳玉 등의 노력으로 설립되고, 同年 4월 16일엔 下貴私立尋常小學校가 高昌玉, 文基宅 등의 공으로 설립되었으며, 또 同日字로 高山私立尋常小學校가 金承鎬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공립학교로 개편을 하게 되었다.<sup>103)</sup>

### 3. 公立初等教育機關의 設立

#### 1) 普通學校

초기의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小學校」는 그 설치기관과 경비의 支辨의 상위에 따라 官立·公立·私立의 3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구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가 설립하고 국고에 의해 유지·경영되는 것을 官立小學校로, 府郡 등의 지방관서가 설립하고 지방 公費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公立小學校로, 學部大臣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도의 觀察使의 인가를 받아 개인이 설치 경영하는 것을 사립소학교로 각각 구분하였다.<sup>104)</sup> 이러한 구분은 「普通學校令」에서도 계속하여 그 설립기관과 經費支辨의 방법에 따라 官立普通學校·公立普通學校·私立普通學校의 3가지로 나누었다.<sup>105)</sup> 이렇게 우리 나라의 초기 근대 초등교육법제가 官·公·私立의 구분을 둔 것은 당시에 꺾박했던 어려운 국가 재정에도 불구하고 근대학교제도를보다 신속하게 수용·보급하기 위하여서는 불가불 중앙 정부가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 지방재정과 개인의 私財 이외에 國庫의 지출을 제도화한 것으로 「小學校令」의 부칙 제28조에서 「공립소학교 경비는 現今間 國庫에서 支辨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小學校令」제17조는 각 府郡의 행정구역에 학령아동의 취학을 위하여 공립소학교를 설치할 것과 同令 제18조에서 공립소학교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립소학교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각 府郡에 설치

103)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 69.

104) -1895년(고종 32년) 7월 19일 勅令 제 145호 제정-「小學校令」제 2, 3 조.

105) 「普通學校令」제2조.

될 공립소학교의 수와 위치는 學部大臣이 정한다고 못박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은 1896년 9월 17일 學部令 제5호의 「地方公立小學校位置」의 법령을 낳게 하였고 이 법령에 따라 공립소학교가 설치될 府郡은 漢城府를 비롯한 13개의 觀察府와 開城府 등 2개 府, 仁川港 등 4개 港, 濟州牧의 1개 牧, 그리고 楊州郡을 비롯한 17개 郡 등 도합 37개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립소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補助公立小學校規則」<sup>106)</sup>을 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 府郡에서 설치하는 공립소학교가 국고 보조를 받으려면 적어도 400인 이상의 출석학생을 확보하여야 하고, 아울러 校舎와 긴요한 교구와 기구를 갖추도록 하였던 바, 1907년 4월 현재 학부직할 관립학교가 校洞을 비롯한 13개교, 觀察府 소재 공립학교가 수원을 비롯한 13개교, 각 지방소재 공립학교가 개성을 비롯하여 28개교,<sup>107)</sup> 그리고 설립된 것이 확실한 지방소재 공립학교가 江華를 비롯한 38개교 도합 92개교<sup>108)</sup>에 달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제주도의 근대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는 1906년 8월 27일 「普通學校令」<sup>109)</sup>의 발표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이를 발판으로 1907년 5월에 설립되었다. 제주공립보통학교는 현 제주북초등학교의 前身이며 학교의 위치에는 변동이 없다.

이 후 1909년에 旌義公立普通學校<sup>110)</sup> 그리고 1911년에 大靜公立普通學校가 설

106) 1897. 2. 20 學部令 1號.

107) 濟州公立普通學校는 이 28개교 가운데 하나이다.

108) 安基成(1984), 「韓國近代教育法制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 216. p. 216에서 관·공립 소학교의 명칭을 본문에 적은대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을 보면 92개교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관·공립소학교의 명칭은 「학부직할보통학교명칭」(1906. 9. 1, 학부령 24호), 「각 관찰부에 소재한 공립보통학교의 명칭」(1906. 9. 18, 정부령 18호), 「각 지방공립보통학교의 명칭」(1907. 4. 1 학부령 4호)등을 참조할 것.

109) 日帝의 統監府는 植民地 教育의 基本政策을 樹立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教育法令을 制定하여 學制를 大幅 改編하였는데, 初等教育에 관한 事項을 보면, 1906年 8月 27日 「普通學校令 및 同施行規則」을 公布했으며, 그 후 9月 1日부터 施行하였다. 그리고 同年 9月 4日 學部令 제 27 호로 종래의 小學校는 普通學校令 施行日로부터 同令에 의해서 設立된 公立普通學校로 認定되고 職員도 또한 辭令簿를 내지 않고 같은 요령으로 普通學校 職員으로 認定되었다. 이 후 1938年 3月 제3차 改正 教育令이 나와 「尋常小學校」라고 명칭이 바뀔 때까지 「普通學校」명칭이 사용되었다.

110) 위미신용협동조합(1991), 「爲美里誌」, p.109에 의하면 정의보통학교는 사립교육기관이었던 「義明學校」를 흡수하여 설립되었다고 적고 있음.

립되었는데 일제는 문화창달정책의 일환으로 1919년부터 8년 계획으로 3面 1個校에서 1面 1個校 비율로 보통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에 西歸公立普通學校가 설립되었고, 1921년에는 朝天公立普通學校, 1923년에는 명월리에 있던 私立舊右面普通學校가 舊右公立普通學校로 인가되었으며, 애월리에 新右公立普通學校가, 김녕리에 舊左公立普通學校가 각각 설립되었다. 또한 城山公立普通學校가 설립된 것도 이때로서<sup>111)</sup> 1923년도말을 기준으로 할 때 도내의 공립보통학교는 9개교 34학급으로 교원수가 42명이었는데, 有資格教師와 無資格教師가 각각 半半이었다. 학생수는 2,499명이었고 총경비 10만원을 투자하였다. 1924년에는 西中公立普通學校, 1925년에는 楸子公立普通學校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안덕면 소재의 안덕보통학교가 1930년 4월에, 조천면의 함덕보통학교와 표선면의 성읍보통학교가 1937년 7월에, 한림면의 신창보통학교와 구좌면의 세화보통학교 그리고 서귀면의 신호보통학교가 1938년 5월에 각각 개교됨으로써 제주도는 1面 1校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본도의 보통학교 실정과 교세를 다음 <표 6>과 <표 7>을 통하여 비교해 보면 그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6> 普通學校 一覽<sup>112)</sup>

(1927년 현재)

設立	校名	修業年限	設立年度	職員		學級	學生數			現在校名
				韓人	日人		男	女	合	
公立	濟州	6	1907. 5	7	6	15	750	148	898	濟北校
公立	旌義	4	1909. 3	3	1	4	207	5	212	表善校
公立	大靜	4	1911. 6	5	1	6	189	1	190	大靜校
公立	西歸	4	1920.10	3	1	4	188	0	188	西歸校
公立	朝天	6	1921.10	6	1	7	354	34	388	朝天校
公立	舊右	4	1923. 9	3	1	6	322	16	338	翰林校
公立	新右	4	1923. 9	3	1	5	287	24	311	涯月校
公立	城山	4	1923. 9	3	1	5	237	10	247	東南校

111) 「全羅南道事情誌」, p. 40.

112) 全羅南道廳編, 「全羅南道事情誌」의 내용 요약. ;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p. 49-50에서 재인용.

設立	校名	修業 年限	設立年度	職員		學級	學生數			現在校名
				韓人	日人		男	女	合	
公立	舊左	4	1923. 9	2	2	5	252	0	252	金寧校
公立	西中	4	1924.11	4	0	4	151	0	151	南元校
公立	楸子	4	1925. 9	3	1	4	110	7	107	楸子校
公立	左面	4	1927. 4	2	0	2	92	0	92	中文校
附設	琴瑟浦		1924. 4			2	91	2	93	大靜校附設
附設	松操		1923. 4			2	140	0	140	朝天校附設

<표 7> 公立尋常小學校

(1938년 현재)

尋常 小學校名	所在地	設立年月	修業 年限	職員			學級	兒童數		
				日人	韓人	計		男	女	計
濟州北	濟州邑	1907. 5	6	8	10	18	17	847	340	1,187
表善	表善面	1909. 3	6	2	3	5	5	322	25	347
大靜	大靜面	1911. 6	6	3	3	6	6	387	77	464
西歸浦北	西歸面	1920. 9	6	3	4	7	7	418	86	504
朝天	朝天面	1921. 6	6	2	4	6	6	377	99	476
翰林西	翰林面	1923. 9	6	3	4	7	7	408	88	496
涯月	涯月面	1923. 9	6	2	4	6	6	376	53	429
城山浦西	城山面	1923. 9	6	4	3	7	6	375	30	405
金寧	舊左面	1923. 9	6	2	4	6	6	361	50	411
南元	南元面	1924.11	6	3	3	6	6	362	29	391
楸子西	楸子面	1925. 9	4	1	2	3	3	149	25	174
中文	中文面	1927. 4	4	1	2	3	3	197	29	226
安德	安德面	1930. 4	4	1	2	3	3	188	18	206
咸德	朝天面	1937. 7	4		1	1	1	68	12	80
新昌	翰林面	1938. 4	4	1	1	2	2	135	6	141
城邑	表善面	1937. 7	4		1	1	1	75	5	80
細花	舊左面	1938. 5	4		1	1	1	67	12	79
新孝	西歸面	1938. 5	4		1	1	1	67	13	80
計	(18校)			36	53	89	87	5,179	997	6,176

<표 7>에서 보듯이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1927년에 898명 하던 제주공립 보통학교 학생수가 1938년에는 남학생 847명, 여학생 340명 모두 1187명으로 증

가하여 학급규모도 17학급으로 2개반이 증가한다. 다른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르면 1927년 당시 학생수가 92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였던 중문면 소재의 左面普通學校의 경우 1938년에는 교명이 中文普通學校로 바뀌면서 여학생 29명을 포함 226명을 기록하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일제의 서당교육 탄압책 때문이었는데 개량서당을 보통 학교 체제로 바꿔 인가하거나 「書堂規則」을 개정하여 기존의 서당 인원수를 30인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서적을 제한하는 등 개량서당의 교육기능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당교육의 조건 가운데 「書堂이 있는 곳에 近代學校인 普通學校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자녀들은 普通學校에 입학하도록 啓導하고 방해하지 말 것」<sup>113)</sup>과 같은 항목은 그러한 제한 조치의 대표적인 예였다.

이로 인해 개량서당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초등교육 지원자들은 자연 보통학교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書堂規則」이 제정되던 191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개량서당의 생도수가 260,975명으로 보통학교 학생수 76,061명에 비해 월등하였는데 1938년경에는 前者가 172,456명이고 後者は 1,081,908명<sup>114)</sup>으로 완전히 逆轉된데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제주보통학교나 서귀보통학교 그리고 성산보통학교, 서중보통학교, 추자보통학교 등은 애초부터 보통학교 편제로 설립이 된 것이지만 다른 학교들은 대개 개량서당을 그 모체로 하였다. 이르면 대정보통학교는 1908년 10월 19일에 개교한 私立韓一學校에서 1911년 2월 1일 私立大靜學校로 개편 인가되었던 것이 1911년 11월 1일 개칭되었으며, 조천보통학교 역시 1903년 3월에 개설되었던 義貞學塾과 그것을 승계한 朝天義塾을 모체로 1920년 7월 개교하였다.

그런가 하면 당시 제주도의 1군 12面 중에서 23개 리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면이었던 舊右面에서 한 개뿐이었던 舊右普通學校는 1914년에 개설되었던 普明塾을 모체로 하였으며, 舊左普通學校는 1921년 金寧진풍회가 東金寧과 西金寧에

113) 「書堂管理件」, 1908年 8月 28日 學部訓令 第3號.

114)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種 初等學校 累計, 書堂 累計, 參照.



개설하였던 개량서당을 발판으로 하였고, 左面普通學校 역시 1920년에 개설된 進修義塾이라는 개량서당이 모체였다. 여기서 공립보통학교의 모체는 사립의 개량서당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2) 簡易學校

3·1운동 이후 일본은 武斷政治가 韓國民族彈壓方式에 있어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融化政策을 통해서 문화면에서부터 다소 그 지배방식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기만했다. 이것이 소위 文化政治로서 그 방법이 교묘화 했을 뿐, 한국 지배의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즉 그들의 교육정책은 한국 국민의 격화된 반일 감정을 무마하려는 유화책에 불과할 뿐, 그 基底에 깔린 同化主義와 差別主義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一視同人」·「內鮮一體」·「內鮮共學」·「日鮮融和」·「內地準據主義」·「內地延長主義」등의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한국 국민에게 同化主義教育을 더욱 본격화해 갔다. 이에 따라 1922년 “內鮮共通의 精神에 基하여 同一한 制度下에 施設의 完整을 期한다.”(朝鮮總督의 諭告)는 미명 아래 「朝鮮教育令」을 개정(1922. 2. 4. 勅令 第 19 號)하여 同化主義를 가일층 강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조선에 있어서 문맹퇴치를 확대한다는 뜻으로 1932년부터 簡易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簡易學校 제도를 개설하게 된 것은 1面 1校로서는 초등보통교육의 보급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조선에는 면적이 큰 면이 많아 보통학교의 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특히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농촌의 아동들을 교육시켜 산업육성과 노동력을 확대하므로 일제의 경제적인 이득과 일본인화를 앞당겨 식민지 교육의 제도적 확장을 꾀하는데 있었다.

이런 점은 簡易學校의 설치 목적에서 “朝鮮教育令 제4조 및 普通學校 규정에 준하되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日語)를 습득하게 하는데 힘쓰고 동시에 지방실정에 더욱 적절한 職業陶冶에 힘”이라고 밝힌 점에서나 다음과 같은 簡易學校의 특질을 考察해보면 알 수 있다.

첫째, 수업년한이 2개년이란 短期 過程이면서 完成教育이라는 점,  
 둘째, 2개년 1개 학급의 單級學校라는 점,  
 셋째, 1校 1敎員으로 敎師는 部落定住의 要件이라야 된다는 점,  
 넷째, 職業의 陶冶에 各별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는 당시 개량서당을 통한 서당교육의 왕성한 증가를 견제  
 하기 위함이었다.

1934년 4월부터 簡易學校가 전국의 농촌벽지에서 개설되기 시작했는데 1937년  
 전국적으로 80개교가 설치되었으며 본도의 簡易學校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簡易學校 一覽<sup>115)</sup>

1939. 3. 31 現在

校名	面別	開校日	學級數	職員數	수업 년한	學 生 數		
						男	女	合
古城簡易學校	涯月面	1934. 5. 1				61	2	63
西好簡易學校	西歸面	1934. 5. 1				41	15	56
蘭山簡易學校	城山面	1935. 6.20	모두	모두 1명	모두 2년	61	-	61
善屹簡易學校	朝天面	1936. 5. 1	1개			60	19	79
今岳簡易學校	翰林面	1937. 6.15	학급			53	17	70
龍潭簡易學校	濟州邑	1938. 5.10				53	17	70
松堂簡易學校	舊左面	1938. 6. 5				38	-	38

<표 8>의 간이학교 개설에 이어 1939년에 東廣(안덕면), 九億간이학교(대정면)  
 2개교<sup>116)</sup>와 1940년에 於道(애월면), 光俞간이학교(애월면) 2개교, 그리고 1941년  
 에 我羅(제주읍), 衣貴(남원면), 大屹간이학교(조천면) 3개교가 설립되어 모두 14  
 개교로 확대된다. 이들은 1943년부터 모두가 6년제 국민학교로 개편 승격하여  
 운영되다가 조국의 광복을 맞는다.

대정읍 신평리의 姜信元<sup>117)</sup>에 의하면 자신은 소화 16년(1941), 17년 2년을 구  
 역간이학교에 다니다가 모슬포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고 하며,

115) 濟州島廳(1939), 「濟州島勢要覽」, p. 48에 의한 자료임.

116) 南濟州郡(1986), 「南濟州郡誌」, p. 702.

117) 姜信元(68세),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98-2번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학생수는 한 학년에 50여명으로 거의 남자였으나 여자도 5~6명 정도 있었다. 대개 10살 전후의 학생들이었으나 16~17살 되는 나이 많은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구역을 비롯 신평, 보성, 서광서리 등지에서 찾아왔다. 교과목은 국어(일어), 조선어, 산술이었으나 2년 후에는 조선어는 완전 폐지되었다. 주로 작문을 통하여 국어를 공부했으며, 수업년한은 2년으로 2년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은 모슬포에 있는 공립보통학교에 편입했다. 선생님은 처음 한 분이 맡으셨는데 나중에 한경면 산양리 수룡동의 高○○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치셨다. 당시 월사금은 60錢이었는데 이것은 그때 자리돔 1말 가격이 60錢이라서 꽤 많은 편이라 여겨졌다. 校舍는 공회당 건물을 사용했었는데 이 건물의 기둥이 한아름 이상되는 통나무 기둥(이 기둥은 무릉초등학교가 지어질 때 사용되었었으며, 그후 평지동 마을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함.) 이었던 점으로 보아 건물을 지을 때에 동네 전체가 공동부역에 당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연중행사로서 소풍과 운동회가 각각 1회씩 열렸고 운동회는 개인의 발(조를 심었던 밭)을 빌어 모든 학생들이 조그루를 뽑고 밭을 밟은 후에 치뤄졌다. 경기 종목은 기마전, 달리기, 말타기 등을 했는데 지금과는 달리 백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경쟁했다.

2학년 을 다니면서 구구법을 외웠고, 일어를 배울 때는 일어의 발음과 우리말의 뜻이 같은 점을 들어 재미있는 문장을 만들어 외웠다. (예를 들면, 호미(일본어로 '가마'임)가져 가마. 핑(기지)이 담구멍에 기지. 베(나와)ㄱ정 나와. 호박(가보자)타래 가보자 등)

학교에서의 食水는 학교 안에 큰독을 2~3개 놓아두고 신평과 구역 사이에 있는 홍구물을 대바지(작은 허벅)로 걸어다가 부어두었다가 사용했다.”

이 증언에 의하면 이 때 학생들은 대개 서당에 다니다가 들어온 학생들로 좀 더 많은 공부를 못했음을 한스러워했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이학교는 대개의 경우 처음부터 간이학교 체제로 설립되었지만 보통학교처럼 개량서당을 모체로 한 경우도 많았다. <표4-4>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개량서당들이 本島의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 IV. 日帝下 初等教育 制度와 教育內容

### 1. 學部の 學政參與官에 의한 教育干涉期

(1905. 2 ~ 1906. 8)

學部の 「學政參與官」에 의한 教育干涉期란 한국의 일본에의 예속화의 第2步라고 할 수 있는 「韓日外國人顧問備聘에 관한 협정」(소위 제1차 한일협약: 1904. 8. 22)에 따라 1905년 2월에 일본인 학정참여관이 한국에 온 것을 계기로 일본의 국가권력이 한국 청소년의 교육에 행정적으로 간여한 때부터 1906년 8월에 諸「學校令」이 공포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05년 2월은 일본이 이미 재정, 외교, 경찰권을 가지고 한국의 교육행정에의 직접 간여가 시작된 때이며, 幣原坦(시데하라 다히라)라는 學政參與官이 와 있을 때였다. 그는 형식상 한국정부에 고용된 몸이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의 외무대신 및 주한일본공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으며, 이미 한국의 교육행정권을 탈취할 계략을 짜고 있었던 터라 동년 4월에 「韓國教育改良案」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교육의 현황·개혁의 방침 및 그 방법 등을 일본국의 외무대신에게 上申했다.

「韓國教育改良案」序頭の 방침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의 교육을 일본의 한국침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효율화시키고 扶植시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 시킨 내용<sup>118)</sup>을 보면

- ① 제1기 : 1)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편, 2) 視學의 설치, 3) 교과서 편찬, 4) 의학 및 교육양성기관정리, 5) 외국어학교의 통일, 6)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편, 7) 農商工學校의 기초 확립, 8) 私立日語學校의 정리
- ② 제2기 : 1) 여학교 창설, 2) 農商工學校 分立, 3) 고등학교와 諸種專門學校의 增設, 4) 성균관의 개혁
- ③ 제3기 : 1) 보통학교에 補修科 설치, 2) 고등전문학교 설립 등이었다.

118) 鄭在哲(1985), 前掲書, pp. 203-204.

이때 우리에게는 비록 일제의 간섭과 그들의 것을 모방하기는 했어도 <표 10>과 같이 근대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하는 각 규칙이 있어 근대학교 설립이 전국에 걸쳐 胎動되어 1895년 5월 1일 한성사범학교와 부속소학교를 시작으로 1896년 9월 17일에 3개 府, 13개 觀察府, 4개 港, 濟州牧과 17개 郡 등 38개소에 공립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학부령 제5호를 발표했다.

학부에서는 계속해서 공립소학교를 증설하여 그 결과 1903년 3월 현재 관공립소학교는 관립 8개교와 공립52개교 등 도합 60개교에 이르렀다.<sup>119)</sup>

여기서 최초의 근대초등교육법제인 소학교령에 대해 살펴보면, 소학교령은 전문이 4장 29조로서 그 제도적 개요<sup>120)</sup>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목적 :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발달에 鑑하여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授하는 것을 本旨로 한다.(제1조)
- 2) 종류 : 관립, 공립, 사립(제2조)
- 3) 과정 : 尋常科, 高等科(제6조)
- 4) 수업년한 : 심상과 3개년, 고등과 2개년 또는 3개년(제7조)
- 5) 교과목
  - (1) 심상과 :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단 時宜에 따라 체조를 제하고,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의 1과, 혹은 數과를 加하며,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加할 수 있음.
  - (2) 고등과 :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도화, 체조, 재봉(여), 단 時宜에 따라 외국어를 가하고,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 중 1과 또는 數과를 제할 수 있음.(제9조)
- 6) 학령 : 만 7세로 만 15세까지 8개년(제16조)
- 7) 취학 : 각 府·郡은 그 관내의 학령 아동을 취학시킬 공립소학교 설립 의무화(제17조)

119) 《皇城新聞》 제1320호, 1903. 3. 23.

120) 구한국관보 제119호 (1985. 7. 22) : 金英宇(1997), 「한국 개화기의 교육」, pp. 48~49에서 재인용.

8) 경비 : 관립 - 국고, 공립 - 당분간 국고 지원.

일제는 이러한 우리의 학교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1906년 8월에 「農林學校官制」, 「師範學校令」, 「高等學校令」, 「外國語學校令」, 「普通學校令」 등의 諸學校令을 發布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幣原의 구상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표 9〉 제주도내 설립년도별 서당수

시 기		지 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잔여 수
		창설	폐설	창설	폐설	창설	폐설	창설	폐설	창설	폐설	창설	폐설	
1895년 이전		4	-	1	-	2	-	6	-	13	-			13
학부	1895~1904	5	1	3	-	6	1	8	-	22	2			33
교육 간섭기	1905~1906	1	-	1	-	2	1	-	-	4	1			36
학교령	1907~1910	3	-	1	-	4	-	3	-	11	-			47
제1차 조선 교육령	1911~1921	12	2	9	2	32	7	16	2	69	13			103
제2차 조선 교육령	1922~1929	13	9	9	7	33	17	20	13	75	46			132
	1930~1937	7	8	5	8	22	33	7	16	41	65			108
제3차 조선 교육령	1938~1942	4	7	1	4	3	21	3	17	11	49			70
제4차 조선교 육령	1943~1945	-	8	-	6	3	13	1	10	4	37			37
1946 이후		1	16	-	4	6	19	3	11	10	50			--
연대 미상		5	4	1	-	17	18	7	5	30	27			-
계		55	55	31	31	130	130	74	74	290	290			

(※제주도교육연구원, 1994, '제주의 서당교육'에 의한 자료임)

당시 제주도에에는 공교육기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나 각 마을마다 전통적인 서당이 存立해 있어 마을의 敎學을 담당하고 있었고, 開明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신교육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이 서당교육의 한 예를 들면, 1891년 제주시 오라동에 高成謙이 설립한「七峰書堂」은 전통윤리의 계승과 충효·애향사상 및 우국이념의 고취를 교육목표로 약 20 여명의 청소년들을 훈장 자택에 모아 천자문과 동몽선습, 명신보감을 가르쳤다. 교수방법은 부문별 개인교수로 초가 4칸 집을 터서 學童을 井자로 앉히고 가운데 훈장이 앉아 돌아가며 학습지도를 했다고 李膺鏞는 증언<sup>121)</sup>하고 있다. 특히 斥邪衛正의 논리를 바탕으로 독립심과 배일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전통적인 한문교육과 함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민족주체성을 확립시키는 교육에 힘썼는데 기존 서당<sup>122)</sup>이나 뒤를 이어 생겨난 많은 서당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 2. 통감부에 의한 「學校令」施行期

(1906. 8 ~ 1911. 8)

이 시기는 1906년(光武 10년) 8월 27일, 대한제국 황제의 勅令으로 반포된 諸「學校令」이 일제에 의한 「朝鮮敎育令」(1911. 8. 22)의 공포에 따라 그 시행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다시 제1차 학교령 시행기와 제2차 학교령 시행기로 나누는데 제1차 학교령 시행기는 1906년 8월부터 1909년 4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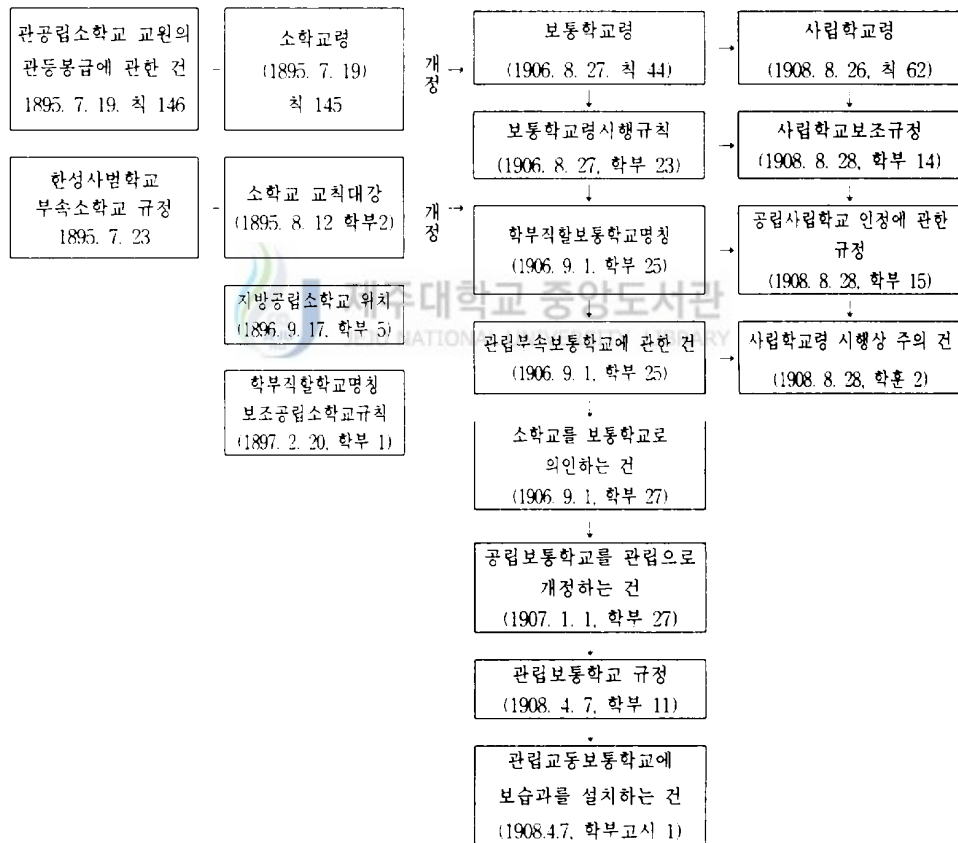
121) 濟州道敎育研究院(1994), 「濟州의 書堂敎育」, pp. 122-123.

122) 「濟州의 書堂敎育」에 제시된 제주도내 290여개의 서당을 창설·폐설년도를 통해 분류 정리한 결과 1905년전까지 창설된 서당수가 35개, 폐설된 서당수는 2개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창설년도가 불확실한 서당수 30여 개소 중 상당수와 조사하지 못한 곳까지 합하면 70여개 이상의 서당이 도내에 존립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 9>에서 보듯이 일제하에서 상당히 많은 서당들이 개설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濟州敎育史」에 따르면 옛날의 濟州島에는 1 촌락에 많으면 서당이 5·6개소 적어도 2·3개소가 있었으리라는 견해로 보아 조사에서 빠진 서당이 상당수 되리라 여겨짐. 여기에서 1 촌락이라 하면 행정단위의 1개뼉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1936년 기준으로 하면 당시 濟州島는 167개뼉(자연부락 343개소)로 편성되었었음.

에 개정된 제학교령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때까지로 지목될 수 있고, 제 2차 학교령 시행기는 개정된 제학교령이 시행된 1909년 9월부터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때인 1911년 8월까지로 지목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시책에 있어서는 특히 초등교육에 관심을 두었는 바, 이는 저급한 초등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의 愚民化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배경이 되었고 초등교육을 통해 일찍부터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교육함으로써 초등교육을 친일교육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學部가 제정·공포한 교육에 관한 법규 중 초등교육에 관한 법규를 들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初等學校法 體系



(官制期)

(學校令期)



일제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식민지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일본어, 수신, 역사, 지리, 그리고 실과 등의 교과를 중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어 교과를 중시했다. 일본어교과는 종래 외국어로 하여 隨意科目이었던 것을 통감부 시대에 들어서서는 서슴없이 모든 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수업시수를 늘려 부과했다.

보통학교의 경우 보통학교령 제6조에,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修身과 國語와 漢文과 日語와 算術과 地理 歷史와 理科와 圖畫와 체조로 하고 여자에는 手藝를 가함이라.

하여 일본어교과가 정규 필수과목으로 課해졌다.

여기서 소학교령과 보통학교령 당시의 교과 내용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敎科들의 내용 비교<sup>123)</sup>

구분 교과	小 學 校 令	普 通 學 校 令
修身	<p>아동의 양심 啓導, 덕성 함양, 인도실천등의 방법을 가르침.</p> <p>심상과 : 효제, 우애, 예경, 인자, 신실, 의용, 공검(孝悌, 友愛, 禮敬, 仁慈, 信實, 義勇, 恭儉)등 실천방법을 가르침. 존왕애국하는 士氣를 양성, 국가에 대한 책무, 염치의 중요성, 풍속과 품위의 純正에 따름.</p> <p>高等科 : 위의 사항 도야</p> <p>女學生 : 정숙의 미덕 키움</p>	<p>學徒의 덕성함양과 도덕의 실천 지도</p>
讀書 와 作文	<p>보통의 언어와 일상 알아야 할 문자, 문구, 문법의 읽기와 뜻 배움</p> <p>정확한 사상을 표현하는 능력 양성.</p> <p>知德의 개발</p> <p>尋常科 : 평이한 담화, 국문의 읽기, 쓰기, 문법 등을 알게 함.</p> <p>국문과 한문 동시 학습.</p> <p>高等科 : 漢字交文의 독서, 日用書類 가르침. 국문사용법, 語句의 용법 익힘</p>	<p>국어(國語) : 일상에 필요한 문자와 문체(文體)를 가르침</p> <p>정확한 사상을 표현하는 능력 양성, 덕성 함양, 보통 지식 교수.</p> <p>정확한 발음, 일상의 문자에 대한 읽기, 쓰기의 법과 바른 언어 익힘.</p> <p>작문, 습자시간 구분 교수하되  연관시켜 가르침.</p> <p>作文 : 국어·한문의 내용, 일상견문 등</p>

123) 安基成(1984), 前掲書, pp. 230~233.

구분 교과	小 學 校 令	普 通 學 校 令
習字	通用文字의 쓰는 법, 運筆 등을 배움 尋常科 : 短句와 인명, 물명, 지명의 일용문자와 일용서류 익힘. 계서, 행서 高等科 : 일상의 적절한 문자 증가, 일용서류 익힘, 계서, 행서, 초서 습자시의 자세, 執筆과 운필의 방법, 字形, 字行 익힘	習字 : 계서와 반초서
漢文		보통의 한자 및 한문 이해 품성 도야 賢哲의 嘉行善行 등 이해
日語		會話, 문법의 이해, 작문, 일문의 읽기, 쓰기 발음, 번역
算術	일용의 계산 익힘, 상을 정밀케 함. 생업에 유의한 지식 尋常科 : 加減乘除, 小數의 계산법, 도량형, 화폐, 시간 등 단위 학습, 필산, 주산 高等科 : 주산, 필산 병용, 주산의 가감승제, 도량형, 화폐, 시간 등 단위계산, 比例, 분수, 소수, 이해력, 정밀성, 응용력을 중시	일상의 계산 익힘, 생활에 필요한 지식, 思慮를 적확케 함. 수의 書法, 가감승제, 소수, 분수, 도량형, 화폐, 시간 등 익힘. 筆算 경우에는 珠算 병용. 이해를 정확케 함. 運算 익힘 應用自在 心算=암산 速算
地理 本國地理 外國地理	본국지리 및 외국지리의 개요와 생활에 관한 사항 이해, 애국 정신 양성, 지형, 방위, 기후, 유명도시, 인간생활상 등 개량이해. 지구의 형상, 수륙 등 이해 高等科 : 지구의 운동, 밤낮 4계절의 원인 이해 대양대주 5帶의 분별, 각대주의 지형, 기후, 산물, 인종 등 이해 실지관찰, 地球儀, 사진 등 이용	지구의 표면, 인류의 생활상태, 본방과 隣邦의 國勢 이해. 본방과 인방의 地勢, 기후, 區劃, 도회, 산물교통 등의 개요 실지 관찰, 지구의, 지도 표본, 사진 등 사용
歷史 本國歷史	國體의 개요. 국민된 志操양성. 향토의 史談. 건국의 체제, 현군의 성업, 충량현철의 사적, 개국유래 등 事歷의 개요 익힘	事跡의 개요, 국민의 발달과 문화의 유래, 인방과의 관계 수신, 지리와 관련시킴

구분 교과	小 學 校 令	普 通 學 校 令
理科	천연물과 現像의 관찰을 정밀케 하고 인생에 관한 관계 이해, 식물, 동물, 광물 등 자연형상의 관찰 에서 시작	좌 동(대략) 농사, 수산, 공업, 가사와의 관계, 가 공법, 제법 등
圖畫	눈과 손의 연습을 통하여 형체의 看 取와 그리는 법, 意匠美 尋常科: 직선, 곡선, 형태 등 高等科: 실물과 畫本 그리기, 간단한 용기물화, 청결, 정밀을 숭상하는 습 관	형태를 간취하여 眞像을 그리는 능력 양성, 美感의 양성 좌동(대략)
體操	신체의 성장을 均齊健剛케 함. 정신을 快活剛毅케 하고 규율준수 습 관 양성. 유희, 보통체조, 병식체조 高等科: 병식체조 여학생: 적절한 체조	신체의 가부 균제히 발육, 四肢의 동 작을 기민케 함. 전신의 건강·보호 증진, 정신의 쾌활 강의, 규율준수와 협동의 습관 양성, 유희, 보통체조, 협동적 유희, 호외운 동
裁縫 (手藝)	눈과 손의 연습. 통상의복의 縫法과 裁法익힘. 尋常科: 運針法, 간이한의복의 봉법, 통상의복의 補綴 高等科: 통상의복의 봉법·재법 의복의 보존, 세탁 등 가르침.	編織, 刺繡 통상의복류의 봉법·재법 익힘. 운침법에서 시작 복잡한 의복류의 봉 법과 보철법 익힘, 용구의 사용법 재료의 품질, 성질, 보존법, 세탁법
唱歌		평이한 가곡, 美感양성, 덕성함양 가사, 악보 이해, 심정을 快活純美케 한다.
外國語	단어, 短句, 문법, 작문, 회화, 통신 등	
農業		농업에 관한 보통지식, 농업의 취미, 근면이용의 마음 양성, 농사, 수산을 가르침 農業: 토양, 水利, 비료, 농구, 耕耘栽 培, 양잠, 목축 등 이해 水産: 漁撈, 양식 제조
商業		상업에 관한 보통지식, 근면민첩, 신 용의 습관 양성, 매매, 금융, 운수, 보 험, 기타 이해

위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최초의 초등교육법제는 각 교과와 특성에 따라 그때그때의 적절한 교수방법을 제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끌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 법제가 전면 개편된 「보통학교령」체제하에서도 국민교육의 관련 교과 등 몇 가지 교과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다. 여기서는 교과명이 바뀐 국어와 수예가 새로 들어선 대신 漢文, 일어 등의 어학교과와 唱歌, 농업, 상업 등의 교과가 추가되고 있다.

「보통학교령시행규칙」은 종래의 독서, 작문, 습자 등 분리된 세 교과를 통합하여 국어로 하였으며, 수신교과는 다만 ‘학도의 덕성함양’과 ‘도덕의 실천’만을 강조함으로써 국민형성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도구교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보통학교령」이 일제의 침략세력인 통감부에 의해 외교권과 재정권이 박탈된 상황하에서 제정된 교육법제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수신교과가 그 국민 형성의 기능을 포기한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이 초등 단계의 교육에 까지 한문과 일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母國語 교육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국민교육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리와 역사교과에 있어서도 ‘隣邦, 國勢’와 ‘隣邦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 시야를 넓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앞의 사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교과의 경향은 당시의 정치적 비극의 前兆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도에서는 1906년 尹元求 郡守가 부임하였고, 윤군수는 신학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근대적인 학교의 설립만이 島民을 계몽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인재를 배출할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1907년 4월 1일자 학부령 제 4호에 의거하여 제주가 공립보통학교 소재지로 지정되자 尹元求 군수는 牧使의 客舍 瀛洲館 두 채를 이용하여 동년 5월 19일 제주공립보통학교의 개교를 보게 되니 이것이 本島 최초의 공립학교로서 현재 제주북초등학교의 前身이다.

또한 당시 학부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1907년 7월 島内 근대중등교육기관의 嚆矢인 私立義信學校<sup>124)</sup>를 설립하고 보통과와 고등과로 수업을 했는데 학교 자리

124)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p. 30~31. 이후 사립의신학교는 1909년에 제주공립

는 현재의 오현단 자리이다.

이렇게 초등교육법제에 따라 학교를 설립한 윤원구 군수는 관덕정에서 자신의 主座 아래 백일장을 실시하여 연령이 많고 성적이 뛰어난 자는 私立義信學校로, 연령이 연소한 자는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시켜 신학문을 교습하기 시작하였다.<sup>125)</sup>

「보통학교령」에 의하면 「소학교령」에서 심상과, 고등과로 나누어져 5~6년제 소학교 과정(심상과 3년, 고등과 2~3년)을 하나로 통일하며 수업년한도 4년제로 단축시켰다. 수업년한을 단축시켰다 함은 국민교육·보통교육으로서 국민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기간을 줄이는 결과요, 교육의 수혜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비록 한국 정부에서 황제의 칙령으로 공포 되었다 할지라도 일제의 간섭에 의했음을 당시 배경에서 유추해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한국 민족의 우민화를 꾀하여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전초였다고 할 수 있다.

입학연령은 만 8세부터 12세까지로 하였는데 당분간은 14세까지 입학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년은 3학기제<sup>126)</sup>로 하였고 수업일수는 년 200일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에는 2개년 이내의 보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목은 종전의 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표 12>를 보면 일어를 국어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여기서 일어교과와 외국어교과에 대해서 언급하면 원래 최초의 초등교육법제인 「小學校教則大綱」에서는 외국어교과를 설정하고 이 설치 목적을 '장래 생활상에 그 지식의 긴요를 인함'이라고 들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선진국들의 언어를 직접 가르침으로써 그 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익히고 받아들여 장래의 생활

---

농업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자연 폐쇄되고 제주공립농업학교(3년제)로 인계되어 학업을 계속하게 된다.

125) 「제주교육사」(1979)에 의하면 공립제주보통학교와 사립의신학교의 초대 교장은 모두 尹元求 군수가 맡았음.

126) 「普通學校令施行規則」제 18 조는 학년을 4월 1일부터 다음 해인 3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19조에서 한 학년을 3학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고 있다.

- 제 1 학기 :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 3 학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丑 12〉普通學校教科課程及 每週教授時數表<sup>127)</sup>

學年 教科目	第 1 學 年		第 2 學 年		第 3 學 年		第 4 學 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修身	1	實踐道德	1	同上	1	同上	1	同上
國語及 漢文	男 10 女 9	日常須知의 諺文及漢字의 讀法 書法 撤 法 平易한 漢 文의 讀法	男 10 女 9	同上	男 10 女 9	同上	男 10 女 9	同上
日語	6	會話及口語文 의 讀法 書法 撤法	6	同上	6	同上	6	同上
算術	6	簡單한 數의 計算法 書法 加減乘除	6	通常의 加減乘除	6	同上及小 數	6	諸算數 分數 步合算
地理 歷史		本國의 地理 歷史		同上		同上及外 國地理		同上
理科					2	動物 植物 鑛物及 自然의 現象	2	簡單한 物理化學上 의 現象 人身生理衛 生의 大要
圖畫	2	簡單한 諸般 의 形體	2	同上	男 2 女 1	同上	男 2 女 1	同上
體操	3	遊戲 學校體 操	3	同上	3	同上	3	同上
手藝	2	運針法 編物 繡法	2	通常衣服 類의 縫法 裁法 繕法	4	同上	3	同上
唱歌		單音唱歌		同上		同上		同上
手工		簡單한 細工		同上		同上		同上
農業						農業의 大要		同上
商業						商業의 大要		同上
계	男 28 女 29		男 28 女 29		男 30 女 31		男 30 女 31	

127) 安基成(1984), 前掲書, p.238의 표 재인용.

에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 위에서 있게 된 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학교령」체제에서는 외국어를 삭제하고 단지 일어만을 한정하여 필수교과로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침략세력의 간교로 짜여진 정치적 영향력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침략세력의 악질적 정치의도는 학교교육단계에서 선진문화와의 접촉의 창구를 그들 나라에만 한정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한반도 점거를 위한 전초를 장식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제가 필수교과로 된 것은 보다 그러한 색채를 짙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사실은 1908년 8월 26일 학부훈령 제3호로 「書堂에 관한 訓令」을 發布했다는 것이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 따라 한국에 「統監」을 두어 내정에도 간섭하게 되자 우리 민족은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자주독립과 민족계몽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혼을 불어 넣는 교육장으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당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우리 민족 고유의 자생적 민중교육기관으로 활약했던 서당이 이 시기에 이르러 민족적 항일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일제는 이를 탄압하기 위해 이 훈령을 발포했다.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서당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신교육의 취지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당시의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存置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다만 그 守舊性을 식민지 통치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른바 「改良」이라는 이름아래 탄압하겠다는 것이었다.

근대적인 법제도 아래 형식적인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가진 학교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서민들의 초등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서당이기에 특별한 법규나 형식적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일제가 탄압의 대상으로 서당을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統監府의 설명<sup>128)</sup>에 잘 나타나 있다.

“서당은 京城을 위시하여 各道 都邑 村落 등 거의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고

128) 鄭在哲(1985), 前掲書, p. 262에서 재인용.

그 수는 적어도 일만 이상에 달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서당은 既述한 바와 같이 古來로 초등교육 유일의 기관으로서 아직도 日暮啼啼하여 한문의 素讀을 받는 것을 業으로 삼아 그 實益을 인정하기란 극히 어렵다 하더라도, 초등교육의 시설이 완전하지 못한 現今 갑자기 이를 폐지하면 많은 아동으로 하여금 취학의 길을 잃게 하여 배우지 못한 백성을 만들 폐단이 있으므로 신교육의 보급에 발맞추어 점차 廢滅에 이를 때까지는 당분간 그 존재를 허락하기로 하고, 을희 2년 8월 사립학교령이 頒布와 함께 道郡府에 대해서 훈령을 발하여 서당에 관한 감독방침을 지시하고 또한 가급적 종래의 弊害를 匡正할 것에 힘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당국이 표면적으로는 국민교육의 이상을 내세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른바 漸進主義의 채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감부에 의한 서당의 「개량」은 한국 국민 스스로 구교육기관을 신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시키고 있었던 바, 한국 국민의 애국적 교육운동의 탄압인 동시에 한국에서의 근대학교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도의 서당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후일 서당의 폐지 원인이 修學者의 감소와 훈장 자신의 사정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끔한 일제의 강제와 同化教育機關인 보통학교와 간이학교에로의 개편이 이를 말하며 행정책임자인 島司가 경찰서장을 겸임하였던 특수성의 反影으로 해석된다.<sup>129)</sup>

### 3. 第 1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1911. 8 ~ 1922. 3)

이 시기의 일제식민주의 정책의 특징은 한 마디로 「武斷政治」 또는 「憲兵政治」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공립학교의 교원은 帶劍을 하고 교단에 서는 분위기에서

129) 朴來鳳(1984), 前掲書, p. 128.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식민지주의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선총독은 한국국민으로 하여금 소위 “天子의 恩澤을 입게 하여 문명의 民으로 함이 제일의 목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물을 移入하여 한국의 개발을 돕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총독은 조선교육령 발표 직전인 1911년 7월 1일 제2회지방장관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더욱 간결하게,

“금후 조선의 교육은 오로지 有用의 지식과 온전한 德操와를 양성하여 제국신민다운 자질품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장을 삼아야 한다. 따라서 먼저 보통교육의 완비를 기하고 또한 중점을 實用教育에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배경 아래 1911년 8월 23일「조선교육령」이 공포된 것을 비롯하여 「사립학교규칙」(1911)·「보통학교규칙」(1911)·「고등보통학교규칙」(1911)·「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1911)·「실업학교규칙」(1911)·「개정사립학교규칙」(1915)·「서당규칙」(1916) 등 많은 교육관계법령과 통칙이 발표되었다.

조선교육령은 전문 30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셋으로 나뉘었다. 보통학교의 설립목적은 아동에게 국민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하는 것에 두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일어)를 가르치며 德育을 베풀어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데 두었다. 또한 보통학교의 입학자격은 8세 이상인 자로 정하였으며(10조), 수업년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방의 상황에 따라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었다.(9조)

교과과정면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라 칭하였으며, 일본어 교수시간(1학년 ; 주당 10시간)을 조선어 교수시간(1학년 ; 주당 6시간)보다 더 많이 배정하였으며<sup>130)</sup>, 통감부시대 학부가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였던 사립학교를 정치적 사정으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을 이 조선교육령 1조(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와 28조(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

130) 수문서관(1911), 「조선현행 법규대전」 제8편, “보통학교규칙” ; 조연순(1995),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서울:학지사, p. 139에서 재인용.

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서 철저히 규제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동 규칙 제2조), 교과서의 사용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조선총독의 검정을 받은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에 반할 때에는 학교를 폐쇄한다(동 규칙 제14조)고 하였다. 게다가 1915년에는 식민지적 교육체제, 특히 관공립학교가 구축되자 종래의 점진주의를 수정하고 「개정사립학교규칙」을 통해 적극적인 통제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규칙은 사립학교를 무조건 통제함으로써 어용화시키려 한 것으로서 ① 교원의 제한, ② 종교교육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았다. 교원의 제한에 관해서는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도 일본어에 통달하고 상당한 학력을 소지해야 하며, 교원자격조건의 구비(교원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일본의 교원면허장 취득자)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정의 목적하는 바는 종래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했던 사립학교의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반일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교원을 교단에서 추방하려는 것이었다.<sup>131)</sup> 종교교육의 금지 문제는 기독교주의학교를 전면적으로 폐쇄 또는 무기력화시키려는 교활한 의도였던 바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켜 1915년 「在朝鮮宣教師聯合會」의 「改正教育令에 關한 決議文」을 내놓게 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그 요구를 일축하고 사립학교 말살책을 전개하므로써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는 <표 13>에서 보듯이 그 수와 활동에서 위축되고 식민지적 교육체제는 일제의 뜻대로 확립되어갔다.

이런 탄압으로 인하여 본도 여성교육의 母胎인 신성여학교가 폐교를 맞게 되었음은 위에서 이미 기술한대로이며, 당시 본도의 개신교계에서 전개했던 문맹퇴치를 위한 교학활동도 크게 위축받아 형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발돋음을 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렸지 않았는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31) 鄭在哲(1985). 前掲書, p. 332.

〈표 13〉 사립학교통계(1910~1925)<sup>132)</sup>

학교종류 년도	일반계	종교계	합 계
1910	1,227	746	1,973
1911	1,039	632	1,671
1912	817	545	1,362
1913	796	487	1,283
1914	769	473	1,242
1915	704	450	1,154
1916	624	421	1,045
1917	518	350	868
1918	461	317	778
1919	444	298	742
1920	410	279	689
1921	356	279	635
1922	352	262	614
1923	376	273	649
1924	364	271	635
1925	347	257	604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書堂規則」의 제정·공포이다. 일제는 1918년 2월 서당을 규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령 제18호로 서당규칙을 공포하였다. 일제가 사립학교를 탄압하면서 서당을 보존한 것은 서당교육 시설이 미비하고 교육내용 또한 유학교육에 국한되어진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당이 民衆教化機關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면서 대중에게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대식 교육내용 및 교재를 이용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문맹을 퇴치하는 한편 일제에 의해 저지되어 오던 올바른 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사나 한국지리 등을 교수하게 되자 이를 탄압키 위한 것이었다.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132) 조선총독부학무국(大正 5年 : 1916), 조선인교육사립학교통계, p.7,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P.173, 조선총독부학무국(昭和 3年 : 1928), 「조선교육요람」, pp.151~152. ; 오천석(1964), 「韓國新教育史」,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p.273에서 재인용.

한문 외에 일어, 산술 등을 가르치도록 하였고, 공립보통학교장으로 하여금 서당을 시찰하여 지도하도록 하였고, 서당교재에 있어서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여 그 중에서 선택 사용케 하므로써 민족주의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민족주의적 訓學者들의 활동을 견제 내지 감시해 나갔다. 이렇므로 서당의 수는 감소되어지지만 생도의 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서당은 일제의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한 민족적 항거를 유지하여 민족정신을 교육하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第 2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1922. 2 ~ 1938. 3)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제정·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內地 延長主義라는 한국 국민에 대한 同化主義教育에 박차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즉 무단정치로 일관해 오던 일제가 3·1운동으로 말미암아 큰 자극을 받아 한국인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육령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학교종류 및 수업년한에 있어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채택한 점,

둘째로 소위 「內鮮共學」을 정한 점,

셋째로 형식상 소위 「一視同仁」을 내세운 점이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일본인)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한국인)라고 하는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민족적 차별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인 청소년과 일본인 청소년 사이에 민족적 차별관념을 싹트게 하는 한편, 한국인 학교에서는 일본인화의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이 교육령에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제도에서는 없던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의 길을 마련하여 한국학생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수업년한은 예과 2년, 본과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있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학하도록 하였다(제12조).

② 보통학교의 수업년한도 4년에서 6년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교육제도에 준한 개편이었으나 일본인을 위한 심상소학교는 수업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고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반면, 우리 민족을 위한 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1, 2항). 실제로 지방에는 상당수의 4년제 보통학교가 일제말기까지 계속 유지되었었다.

③ 일본인을 위한 학교인 고등소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고등과(한국인만을 위한 학교)를 신설하였고 수업년한은 2년이었다. 입학자격은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라야 가능했다(제5조 3항). 따라서 일본식과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확충으로 인해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보통학교의 교육목적은 예전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기르게 하고 일본어를 습득하게 하는데 두었다(제4조). 단지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저들의 정책을 주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힘썼다.

⑤ 교과과정 면에서도 일본어 교수시간은 예전처럼 주당 10시간(1학년 기준)이 배정된 반면, 조선어 교수시간은 전보다 2시간이 줄어든 주당 4시간(1학년 기준)이 배정되었다.

⑥ 농촌에서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간이학교'를 1931년에 창설하였고, 수업년한은 2년이었으며 일어와 직업교육을 시켰다.

이 시기의 일본식민지주의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실제에 있어 교묘하게 차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설립의 사립학교의 성장을 억제하고 오히려 동화주의교육을 본격화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일제는 1919년 5월말 현재 690개교였던 사립학교를 1935년 5월말에는 406개교로, 23,556개였던 서당을 6,807개로 각각 격감시켰다. 또한 주목할 일은 각급학교에 배치되었던 일본인 교사의 수이다. 1935년 5월말의 통계에 의하면, 관공립보통학교 교원 10,723명 중 32.4%(3,472명),

공립고등보통학교 교원 329명 중 85%(281명),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교원 92명 중 74%(68명), 사범학교 교원 115명 중 85%(98명), 관공립전문학교 교원 128명 중 88% (113명), 그리고 대학교수 117명 전원이 일본인 교원이었다.<sup>133)</sup>

본도의 공립보통학교는 1921년까지 제주(현 제북교), 정의(현 표선교), 대정, 서귀, 조천교 등 5개교 뿐이었고 1923년에 와서야 구우(현한림교), 신우(현 애월교), 성산(현 동남교), 구좌(현 김녕교)의 4개교가 증설되는데 그쳐 일제 당국이 얼마나 학교 설립에 인색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24년에 서중(현 남원교), 1925년에 추자교가, 1927년에 좌면(현 중문교), 그리고 1930년에 중면공립보통학교(현 안덕교)가 개교됨에 따라 본도에도 1면 1교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공립학교의 증가와 함께 왕성한 사립학교의 설립운동이 일어났는데 본도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인 明新學校(1920)를 시발점으로 日新(1922), 下道(1923), 中央(1924, 현구좌중앙교), 禾北(1926) 등이 개인 또는 부락의 공동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 서당은 근대교육기관인 보통학교 출현으로 앞의 <표 9>에서 보듯이 1921년에서 1935년 사이 120군데가 창설되고 108군데가 폐설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창설과 폐설의 수가 집중된 것은 당시의 일제의 유희적 태도에 힘입은 민족주의자들이 기존서당을 개량 또는 신설 서당(의숙, 사숙, 학숙, 학사 등)을 창설함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며, 서당 폐설의 요인은 朴來鳳(1984)이 지적한 것처럼 修學者減少, 訓長事情, 일제의 강제, 공사립보통학교와 간이학교로의 개편 등의 요인으로 인함이라 할 수 있겠다.

## 5. 第 3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1938. 3 ~ 1943. 4)

일제는 괴뢰 만주국을 수립함으로써 대륙침략을 굳히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침략을 행하더니 1941년에는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33) 鄭在哲(1985), 前掲書, p. 351.

이에 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에 걸쳐 초비상수단을 쓰게 되었고, 아울러 교육정책면에도 철저한 일본화 교육과 전쟁수행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시 체제에 부합한 교육정책을 펴게 되었으니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938년 3월 3일 제3차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교육을 통한 민족말살정책을 펴기 위한 일환으로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목적은 “...국민의 도덕을 함양하므로써 忠良有爲의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하였으며, 교명을 개칭하여 일본인을 위한 학교명과 동일하게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 칭하였다(제2조).

수업년한은 계속 6년이었으나 그때까지 계속되어 왔던 상당수의 4년제 보통학교를 6년제로 승격시키지 못하고 4년제 심상소학교로 존속케 하였다. 그러다 1941년 3월 31일 칙령 제254호로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어 명칭이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제2조 1항).<sup>134)</sup>

교과과정 면에서 조선어는 그동안 적은 시간이었지만 필수과목이었던 것에서 隨意科로 규정하여(제13조) 소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수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게 하였고, 여자의 경우 가사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연마토록 하여 전쟁수행에 도움을 얻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진다.

본도에서 이 시기에 주목할 사실은 본도의 서당수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표 9>에서 보면 11개의 서당이 창설된 반면 49군데의 서당이 폐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표 3>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개량서당들이 이 시기에 근대학교로 전환된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34) 조선총독부 관보(1941. 3. 31) 제4254호, 「조선교육령」, 칙령 제148호.

## 6. 第 4 次 朝鮮教育令 施行期

(1943. 4 ~ 1945. 8)

모든 교육령을 전시체제에 맞추어 소모되는 병력을 보충하고 소비물자를 강제 공출시키는 恐怖政治를 자행하던 중 1943년 3월 교육정책에서도 제4차로 조선교육령<sup>135)</sup>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10월 13일 조선총독부학무국은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을 공포하고 1944년 8월 22일에는 「학도동원령」을 공포하여 각급학교에 「학도보국대」를 편성케 하고 학생의 노동력까지 강제적으로 착취하기에 이르렀다.

1941년 이미 국민학교령에 따라 개칭된 국민학교의 교육목적은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적 鍊成을 이루는데 있다(제1조)”라고 되어 있다.

교과과정 면에서는 隨意科로 있었던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폐지되어 전혀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의 수업시간에 일본어를 사용하고 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엄한 벌을 주었다. 그리하여 국어는 가정에서 매우 제한되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戰局이 긴박하며, 불리해지자 1945년 5월 21일에는 드디어 학교의 종말과도 같은 「戰時教育令」을 공포하였다.

이 전시교육령은 최후의 학도 전투비상동원령이었으니 이에 따르면 “전시에 즈음하여 문부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소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규 기간 동안 재학하지 않고, 또 정규의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졸업할 수 있다(제5조).”라고 밝힘으로써 전학생을 재학 중이라도 그들의 침략전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남아 있던 학도들에게는 남녀나 초·중등 구별없이 정규 교육은 외면하고 勤勞報國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전쟁물자의 증산을 위한 노력 제공, 방공호 파기, 군사훈련 등에 동원하였으니 일제 말기의 학교 상황은 한 마디로 교육부재였으며, 開門休業 상태에서 開門閉鎖상태로 변하고 말았다.

135) 昭和 18年(1943年) 3월 勅令 제113호로 공포되어 同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7. 普通學校(小學校·國民學校)의 教育內容

지금까지 일제의 학정참여관에 의한 교육간섭기에서부터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에 이르는 일제하의 교육제도와 이에 따른 본도의 초등교육의 실상을 고찰해 보았는데, 여기서 일제가 한국을 합병한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초등교육의 교육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산하의 교육기관 중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에서는 총독부 산하에 설치된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된 교과서만을 사용하였다.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에서는 교과서에 수록할 내용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3 가지를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황국의 도에 귀일하고, 둘째 국민적 기초를 연마하고, 셋째 각 교과에 시국과 국제동향을 반영하는 것 등이다.

이에 의거해서 편찬된 보통학교의 기본 교과목은 修身·국어(일어)·理科·圖畫·체조·창가 등이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는 수산·공업·농업·상업 중 1개 혹은 여러 교과를 첨가할 수 있었으며, 여자인 경우 수예나 재봉을 기본교과목에 포함시켰다.

기본교과는 위와 같으나 교육령에 따라 변화된 교과를 보면

① 농업·상업은 1차에서는 있었으나 2·3차 시기에는 폐지되었다가 4차에서 농업·상업 외에 공업·수산까지도 신설되었다.

② 그리고 여자의 경우 3차 교육령에 의해 가사가 신설되었다.

③ 4차 교육령에 의해 조선어가 폐지되고 武道와 習字가 신설되었으며 창가가 음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편 서당을 개편하거나 사설강습소와 시설이 빈약한 사립학교를 개편하여 총독부 산하에 간이학교를 두었는데, 간이학교의 교과목은 수신·일본어·조선어·산술·직업 등이다. 직업 교과는 지역에 따라 농촌에서는 농업, 어촌에서는 어업, 산촌에서는 산림업, 도시에서는 상업·공업 등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시켰다.

위의 두 기관에서 사용한 교과 중 조선어 독본과 한문 독본 외에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교과목의 설정·신설·폐지와 통합에 관한

사항은 <표 14>와 같다.

<표 14> 일제시대에 설정되었던 초등학교 교과목(136)

교과목		교육령	1차	2차	3차	4차
국민과	수신		○	○	○	○
	국어(일본어)		○	○	○	○
	조선어 내지 한문		○	조선어 (必須)	조선어 (隨意)	(폐지)
	국사(일본사)			○	○	○
	지리			○	○	○
理數科	산술		○	○	○	○
	이과					
체련과	체조		○	○	○	○
	무도					○ (신설)
예능과	창가		○	○	○	음악 (명칭바뀜)
	도화		○	○	○	○
	공작 내지 수공		수공	수공	수공	수공
	습자					○
	가사				○	○
	재봉 내지 수예		○	재봉	재봉	재봉
직업과	농업		○			○
	공업					○
	상업		○			○
	수산					○

136) 조연순(1995), 前掲書, p.150의 표 재인용.

## V.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 設立의 歷史的 意義

1895년 구한말 정부가 최초로 제정한 초등교육법제인 「소학교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발상 시기와 비교하면 2, 3세기나 뒤진 출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정착의 시기와 비교하면 반세기를 좀 웃돌거나 4반세기의 차이 밖에 없는 後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앞섰다고 하지만 그것은 23년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보다는 오히려 7년이나 먼저 이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구한국정부는 교육근대화 대열에 일찍부터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소학교령」이 교육사 위에 새로운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교육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노력이라는 관점에서든 높은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sup>137)</sup>

이러한 구한말의 정부 노력과 함께 당시의 외세 침략에서 조국의 독립을 유지하려 애썼던 선각자들의 노력은 교육입국을 향한 것이었다. 온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만이 나라의 살 길임을 자각하고 곳곳에 교육시설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제의 압력과 간섭은 찾아들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주의적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수월하게 교학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곳이 서당이다. 전통적인 한학서당이든 신문화의 수입으로 신학문을 통하여 국민을 계도하려 했던 개량서당이나 민족주의 실력양성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민족교육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일제는 4 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한국인으로부터 완전히 민족의식을 뿌리 뽑고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일제의 심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민족의식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교육기관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운동이 존재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서당이다. 서당교육을 민족주의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

137) 安基成(1984), 前揭書, pp. 198~199.

는 근거는 첫째 '童蒙先習'을 교재로 사용하여 한국사(특히 단군신화)를 가르침으로써 민족의 긍지와 자주적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것, 둘째 개량서당의 교사가 대부분 민족운동가였다는 것, 셋째 서당출신자가 3·1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정부가 감당하여 담당치 못했던 국민교육 부분을 착실히 수행했으며, 이로 인하여 서당교육을 통한 민족의식은 일제시대 전부터 배양되어 면면히 이어져 오다가 외침이 있을 때 크게 발로되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민족의식이 더욱 고양되고 민족주의로 변하여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서당에서 민족주의적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서당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당에서의 민족주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서당의 교재로 쓰인 '童蒙先習'과 그 畧本들이었다. 서당교육은 동몽선습의 이본들을 사용하거나 근대식 교육내용 및 교재를 사용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문맹을 퇴치하는 한편 일제에 의해 저지되어 오던 한국사나 한국지리 등을 가르침으로써 새로이 민족의식을 다지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의 실패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일대 각성의 기회가 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방향과 방법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의 하나인 교육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길러 독립을 달성한다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교육기관이 바로 사립학교와 서당이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여 교육적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민족교화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게되므로써 학술강습회로 변신되고 이것마저 탄압을 받게되자 다시 개량서당으로 轉身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을 교화하고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교육구국운동가들의 정신은 형태를 바꾸어 개량서당의 교육 속에 계승되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서당교육은 일제하에 있어서 민족주의교육의 최후 거점이기도 하였으며, 교사들의 민족의식과 교과활동에 의하여 민족주의 실력양성을 위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교육사상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이 서당교육은 일제하에서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뚜렷해져

갔다. 즉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은 단순히 동몽교화와 향교, 사학의 진학을 위한 것이었으나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교육으로 대다수의 일반 서민 자제가 보통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개량서당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한문, 일본어, 산술 등을 가르치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제하의 정규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공립보통학교는 1면 1교주의였으므로 수적으로 부족하여 한국인 취학아동을 전부 수용할 수 없었다. 더구나 서당에 비해 보통학교의 학비가 일반서민에게는 부담스러웠고, 한편 일제에 대항한 항거의 표시로 민중은 자신들의 자제를 보통학교에 보내지 않고 서당에 보냈던 것이다. 일제의 대륙침략과 함께 민중의 빈곤은 더욱 악화되어 경비가 적게드는 서당 등 초등교육기관이 필요한 때에 이의 역할을 서당은 잘 담당했다.

또한 서당의 정신적·물질적 토대 위에 개량서당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 개량서당을 기반으로 하여 본도의 대부분 초등교육기관들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본도의 근대교육의 자리 매김을 밝혀주는 귀중한 시사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본도의 개량서당들의 특징이 부락공동경영 서당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들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점으로서 품앗이나 계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공동적으로 대처해 나갔던 조상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면에서 보면 자라는 싹을 무참히 자르듯이 형식적 근대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어 버리거나 공립학교로 전환됨으로 해서 크게 발전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본도 여성교육을 위한 신성여학교의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에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으며, 이보다 먼저 개신교계에 의한 교학활동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화북초등학교의 설립과정은 부락민들의 공동 부담으로 일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공동체적 결속력을 드러낸 좋은 본보기라는 점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 VI. 結 論

본 연구는 일제하 제주도내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로서 당시 도내 초등학교의 설립과정과 초등교육법제의 변화에 따른 초등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의 변화 발전과정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고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제국주의가 전개한 식민지주의교육과 濟州島의 사정에 대해 개괄적인 면을 살폈고,

둘째 근대초등교육기관을 개량서당, 사립학교, 공립학교 등 유형별로 탐색했으며, 셋째로 일제의 한국침략 기간을 교육제도와 관련해 6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당시 제정·공포된 초등교육에 관한 법제와 이것이 미친 영향을 고찰한 후, 넷째로 당시 초등교육기관들이 갖고 있는 교육사적 의의를 찾아 보았다.

특히 일제하 초등교육기관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제주도내 개량서당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제주도 근대초등교육의 정신적·물질적 토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생성·발전된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의 근원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근대교육의 여명은 개화기의 개화파 유배인사들의 교학활동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구한말 李世植, 金允植, 朴泳孝 같은 인사들의 내도로 인해 전통적인 한학 중심의 교학과는 다른 내용의 전개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주도에서도 근대교육사상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동시에 근대학교들이 개교를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간접적인 요인의 하나는 해외에 까지 出勞하여 송금했던 제주도민의 부지런한 성장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제주도의 초등교육기관은 대부분이 조선시대부터 이어 내려 온 전통적인 서당에서 비롯되어 사립학교, 공립학교, 간이학교로 전환되었는데 일제하에 존재했던 사립학교 격인 개량서당들이 그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신성여학교 같은 사립학교의 탄생은 이미 그전에 존재했던 개신교계의

여학교들과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 시발은 중등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육에서 비롯되었고, 일제의 탄압으로 한때 폐교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가장 성공한 사립 학교의 증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本島에서 근대초등교육기관의 탄생은 정부 주도의 공교육제도에 의했다기 보다는 근대의 신문화를 받아들인 개화 인사들의 노력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교육 운동에 앞장섰던 이 사립학교들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문맹퇴치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동화주의 교육정책에 의한 부당한 간섭 및 탄압으로 지속적인 교학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사립학교들은 마을공동부담으로 설립되어 민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도 폐교를 맞든지 일제의 교육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당시 초등학교의 교과과정 운영면에 있어서도 중앙의 법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로 修身과 국어(일본어), 그리고 산술이 주요 교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여 지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중에 일부 개량서당에서는 폐쇄될 때까지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아 민족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도 했었다. 이같이 교과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함은 시설과 教師의 부족 및 일제의 차별적인 교육정책이 빚어낸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주의 교육은 일본인 자제들이 다니던 학교와 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차별을 두어 시행되었는데, 심상소학교의 4년 과정과 간이학교가 2년 과정의 單級學校이며 완성교육이라는 점, 또한 직업교육에 각별한 힘을 쏟도록 독려한 점, 게다가 한국인에게는 상급학교의 진학이 극히 어려웠다는 점 등은 이를 확인해주는 사실들로서 한국인의 교육을 식민지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근대초등교육기관들이 일제의 지배와 간섭 속에서 태동되고 발전해 왔지만 구한말 제주도내 초등교육기관의 효시가 된 제주보통학교의 개교는 국민교육을 위한 근대공교육제도로서의 역사적 첫발이었다는데서 교육사적으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高炳五·朴用厚(1968), 「元大靜郡誌」, 博文出版社.
- 高麗書林(1986), 「朝鮮年鑑」-昭和14年度:1939年度-.
- 高禎鍾(1930), 「濟州島便覽」, 瀛洲書館.
- 金永植·崔熙善(1988), 「교육제도 발전론」, 성원사.
- 金英宇(1997), 「한국 개화기의 교육」, 교육과학사.
- 金泰能, 「濟州島略史」, 梁聖宗 譯(1988), 東京:新幹社.
- 南濟州郡(1986), 「南濟州郡誌」.
- 大韓예수교長老會 濟州老會(1978), 「濟州宣敎 70年史」.
- 北濟州郡(1987), 「北濟州郡誌」,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西歸浦市(1988), 「西歸浦市誌」,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수문서관(1911), 「조선현행 법규대전」.
- 安基成(1984), 「韓國近代敎育法制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오성찬(1985), 「제주의 마을 시리즈 1」-도두리-.
- (1986), 「제주의 마을 시리즈 3」-함덕리-.
- (1986), 「제주의 마을 시리즈 4」-호근·서호리-.
- (1987), 「제주의 마을 시리즈 5」-고성리-.
- (1987), 「제주의 마을 시리즈 6」-애월리-.
- (1988), 「제주의 마을 시리즈 7」-봉개리-.
- (1988), 「제주의 마을 시리즈 8」-대정 고을-.
- (1989), 「제주의 마을 시리즈 9」-화북리-.
- (1989), 「제주의 마을 시리즈 10」-한림리-.
- (1991), 「제주의 마을 시리즈 11」-보목리-.
- 오천석(1964), 「韓國新敎育史」, 서울: 현대敎育총서출판사.
- 鄭在哲(1985),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敎育政策史」, 一志社.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1990),「濟州島部落誌(Ⅲ)」.
- 濟州道(1982),「濟州道誌」상권,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 (1993),「濟州道誌」제1권·제3권,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1995),「朝鮮總督府 官報 中 濟州錄」,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1996),「濟州抗日獨立運動史」,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1997),「濟州統計年報」,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濟州道教育研究院(1994),「濟州의 書堂教育」, 시민당인쇄사.
- (1996),「향토사 교육자료」, 태명인쇄사.
- 濟州道教育委員會(1979),「濟州 教育史」.
- (1987)「濟州教育沿革誌(Ⅱ)」,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濟州道教育廳(1991),「濟州教育行政發展史」, 濟州:耕信印刷社.
- 濟州島史研究會(1995),「濟州島史研究」第4輯, 경신인쇄사.
- 濟州島廳(1924),「未開의 寶庫 濟州島」, 濟州:濟州島廳.
- (1937),「濟州島勢要覽」, 濟州:濟州島廳.
- (1939),「濟州島勢要覽」, 濟州:濟州島廳.
-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회(1997),「제주복음전래100년사 자료집」第3輯, 第4輯, 천주교제주교구.
-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查書(其二)-濟州島-」, 京城:朝鮮總督府.
- 조연순(1995),「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서울:학지사.

#### 〈학술 논문집〉

- 南宮勇權(1984),“韓國 開化期の 社會教育 活動에 關한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朴來鳳(1981),“日帝 統治下の 書堂教育의 實態 -濟州島 I-”,「韓國教育史學」, 合本 2號 중 제6집,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 白子勳(1990),“禾北里 名稱의 變遷과 禾北校의 設立”,「耽羅文化」第10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愼鏞廈(1986), “새로운 향토사의 연구대상과 방법”, 『濟州島研究』第3輯, 濟州島研究會編.
- (1997),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 비평』1997 겨울호.
- 안병직(1997),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작과 비평』1997 겨울호.
- 梁鎭健(1986),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 『濟州島 研究』第3輯, 濟州島研究會.
- (1990), “朝天萬歲運動의 歷史的 意味”, 『北濟州』復刊號.
- (1992), “日帝下 濟州道 初等教育 開設運動”, 『초등교육연구』, 제1집.
- (1995), “開化期 濟州島 教育史 研究”, 『濟州島史研究』第4輯, 濟州島史研究會.
- (1997),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耽羅文化』第1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유재건(1997), “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 『창작과 비평』1997 겨울호.
- Gavan McCormack(1997), “일본 자유주의사관의 정체”, 『창작과 비평』1997 겨울호.

#### < 신문 및 관보 >

- 舊韓國 官報 제119호, “勅令 145호 小學校令”, 1895년 7월 22일.
- 朝鮮總督府 官報 제374호, “공립학교직원의 제복에 관한 건”, 1911년 11월 25일.
- \_\_\_\_\_ 제405호, “朝鮮總督府訓令第1號”, 1912년 1월 6일.
- \_\_\_\_\_ 제12호, “土地調査令”, 1912년 8월 13일.
- \_\_\_\_\_ 제21호, “御歿葬當日遙拜式에 關한 件”, 1912년 8월 23일.
- \_\_\_\_\_ 제41호, “普通學校 規則 中 改正”, 1912년 9월 18일.
- \_\_\_\_\_ 제1661호, “朝鮮總督府令 제18호 書堂規則”, 1918년 2월 21일.
- \_\_\_\_\_ 제736호, “朝鮮總督府令 제55호 書堂規則中 改正”, 1929년 6월 17일.
- \_\_\_\_\_ 제4254호, “勅令 제148호 國民學校令”, 1941년 3월 31일.
- 《동아일보》, “濟州男女聯合講演”, 1921년 8월 9일.
- \_\_\_\_\_, “私立學校現狀”, 1921년 8월 19일.

- \_\_\_\_\_, “濟州興學會講演會”, 1921년 8월 21일.
- \_\_\_\_\_, “濟州島 一校新設立”, 1922년 4월 26일.
- \_\_\_\_\_, “日新學校設立認可”, 1922년 7월 17일.
- \_\_\_\_\_, “耽羅의 古國 濟州에”, 1922년 12월 29일.
- \_\_\_\_\_, “濟州明新校擴張”, 1923년 4월 1일.
- \_\_\_\_\_, “明新學會의 抱負”, 1923년 4월 17일.
- \_\_\_\_\_, “濟州明新校, 問題는 金錢”, 1923년 11월 18일.
- \_\_\_\_\_, “濟州明新校, 비참한 운명”, 1923년 11월 29일.
- \_\_\_\_\_, “明新學會復興, 濟州有志의 奮發”, 1923년 12월 5일.
- \_\_\_\_\_, “濟州明新學校”, 1923년 12월 22일.
- \_\_\_\_\_, “明新校遂解散, 甲子義塾創立”, 1924년 1월 14일.
- \_\_\_\_\_, “濟州甲子義塾(生徒退學命令과 停學으로 不安中)”, 1924년 2월 25일.
- 《濟南新聞》, “내가 걸어온 길 -崔貞淑 ①~⑦”, 1973년 9월 17일, 9월 20일, 9월 24일, 9월 27일, 10월 1일, 10월 4일, 10월 8일자.
- 《皇城新聞》 제1320호, “學部所管 公立學校 補助費”, 1903년 3월 23일.

## 《鄉土誌》



### ● 제주시 지역 ●

蓮花親睦會(1986), 「蓮洞鄉土史」.

禾北洞運營委員會(1991), 「禾北洞 鄉土誌」.

### ● 서귀포시 지역 ●

강정마을회(1996), 「강정 향토지」.

서귀포시 월평동(1992), 「月坪마을」.

중문마을회(1996), 「불란지야 불싸지라」.

### ● 북제주군 지역 ●

古城里鄉土誌編纂委員會(1993), 「古城里誌」.

光令1里(1990), 「光令略史」.  
金玟奎(1991), 「朝天邑誌」.  
金奉玉(1980), 「高内里誌」.  
金行玉(1984), 「增補 納邑鄉史」.  
朴修養(1986), 「金寧里 鄉土誌」.  
夫英性(1986), 「舊左邑誌」.  
龍塘里鄉土誌編纂委員會(1991), 「龍塘里鄉土誌」.  
牛島誌編纂委員會(1996), 「牛島誌」.  
造水里鄉土史編輯委員會(1988), 「造水里鄉土史」.  
終達里(1987), 「地尾의 脈 -終達里誌-」.  
板浦里鄉土誌發刊推進委員會(1995), 「板浦里誌」.  
坪岱里(1990), 「坪岱里」.

● 남제주군 지역 ●

朴用厚(1990), 「最南의 港都 慕瑟浦」, 경신인쇄사.  
水山里(1994), 「水山里誌」.  
溫平里(1991), 「溫平里誌」.  
爲美信用協同組合(1991), 「爲美里誌」.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organizations  
for elementary education under governing of Japan**

Moon, Chang-Gyu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Owan C. Lee

This study is on the form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organizations. Also, this analyzes how erected elementary schools, how changed or developed educational contents and elementary education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revisions of elementary education laws at that time.

So, this study is

- (1) to find the root of modern elementary education of Cheju through a broad research about village schools on Cheju island under governing of Japan
- (2)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s and public schools
- (3) to investigate several laws of Japan, especially Chosun educational laws(朝鮮教育令), and educational contents.

The process is as follows :

First of all, I introduced the colonial education of Japan and situations of Cheju in those days.

Second, I found how established the modern elementary schools, like village schools(改良書堂), private schools, public schools.

Third, I divided the period of Japan's invasion of Korea into 6 steps. Then,

---

I analyze elementary educational laws and their effect

Finally, I examined the educational meanings which elementary education organizations have.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uch great enlightened exiles showed the dawn of modern education in Cheju. That was different from traditional education taught Chinese letters and books, and then, the modern educational thought was introduced. Modern schools were established at that point, also.

Derived from traditional village schools, most of the elementary education organizations were transformed into private schools, public schools or simplified schools(簡易學校). In the middle, there were village schools between traditional village schools and later organizations. That is, modern elementary schools came from private schools established by enlightened people, not public educational system by government-centered. These private schools were erected when new educational movement was developed actively. They tried to heightened national consciousness and teach most of people, especially the unlettered. But they failed to teach continuously because of Japan's assimilation policy. Although some private schools were established by pools of people seemed to national school, they were closed or must change to be public schools which had to follow the education of Japan.

Only ethics, Japanese and arithmetic were usually taught in elementary schools, but there were some village schools that didn't allow to teaching Japanese until were closed because of national pride.

In the colonial education policy of Japan, there was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children's schools in respect of laws. It appeared at Shimsang 4 years courses or simplified schools 2 years complete education courses.

Even though modern elementary education system have developed under the domination and control of Japan, Cheju common schools at the end of Chosun dynasty are the first elementary schools as modern public education system for people. That makes a big difference on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